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

# 여성 노동자의 시선으로 도시공간의 기억 재현하기

## - 대구 섬유산업에 대한 선택적 재현 비판을 중심으로 -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및지역계획전공

김 그 린

# 여성 노동자의 시선으로
# 도시공간의 기억 재현하기

## - 대구 섬유산업에 대한
## 선택적 재현 비판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정 현 주

이 논문을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6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및지역계획전공
김 그 린

김그린의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7월

위 원 장 _____ 전 상 인

부위원장 _____ 고 민 경

위 원 _____ 정 현 주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섬유 도시’ 대구의 남성 중심적인 재현을 비판하고, 도시 아카이빙을 통해 여성 노동자를 공간의 주체로 호명하는 대안적 방법을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둔다. 도시의 다층적인 역사와 다양한 이미지를 경제적 가치로 환원산하는 주류적 재현은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단일한 잣대로 획일화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활동의 주체였던 남성의 시선으로 도시를 재구성한다는 젠더편향적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공간 주체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도시 아카이빙을 통해 ‘여성 노동자’라는 잊혀진 공간 주체들을 이야기의 중심으로 호명하면서 ‘섬유 도시’ 대구라는 획일화된 공간재현 대신 ‘섬유 도시’ 대구를 구성하고 있었던 다양한 노동의 이야기를 일부나마 복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역사에서 잊혀진 여성 노동자들을 가시화할 뿐만 아니라 그녀들을 국가발전에 동원된 ‘희생양’으로 획일화하는 담론 또한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즉 ‘섬유 도시’ 대구의 여성 노동자들은 때로는 탈주하고 개인의 욕망과 타협하면서 도시발전의 당당한 주체로 살아온 다면적인 노동생애사를 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제한적이나마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성 노동과 도시공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섬유 도시’ 대구의 정체성은 노동의 주체였던 여성 노동자의 공간을 단편적으로 재현했다. 섬유산업의 다양한 공정과 여성 노동자들이 맡았던 다양한 업무가 드러나지 못했으며, 특히 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의 모습이 배제되었다.

둘째, 도시를 경제적 가치로만 환산한 재현은 여성 노동자들

이 지닌 다중정체성을 은폐했다. 여성 노동자들은 기술자, 딸 혹은 맏이, 어머니 혹은 가장, 학생의 정체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스스로 돈을 벌어 가족부양 및 생계유지 그리고 결혼자금을 마련했던 경제주체였다.

셋째, 여성 노동자들에게 노동은 목적이 아닌 수단에 불과했다. 이들은 가족부양과 생계유지 혹은 학업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을 택했으며, 인터뷰를 진행한 다섯 명의 여성 노동자 모두 교육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넷째, 섬유산업의 선택적 재현은 영세기업의 이야기를 담지 못했다. 공장의 시설과 여성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편차가 달랐다. 영세기업의 경우 현재까지도 근무환경이 열악하지만, 이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을 그저 '작은 불편함'으로 여기기도 했다.

다섯째, 여성 노동자들의 일상은 기계에 맞춰졌지만, 이들은 공장에 종속된 '을'이 아니었다. 당시 공장은 기술자 구인난을 겪고 있었기에 기술자였던 여성 노동자들의 일탈을 눈감아주기도 했으며, 노동력 유출을 막기 위해 여성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도 했다.

여성을 공간의 주체로 호명하게 된다면, 여성 노동자를 노동착취의 피해자로 해석하거나 혹은 국가 권력에 의해 공적 노동에 진출하게 된 노동자로 단순 재현하게 되는 오류를 피할 수 있다. 여성을 공간의 주체로 호명했을 때 '섬유 도시' 대구는 여성 노동자에게 삶의 터전이자 기회의 공간이 되기도 했다. 이는 그동안 도시연구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지점으로, 숫자로 환원된 기업의 성과만이 아닌 다양한 주체의 이야기를 통해 도시의 정체성이 다층적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도시에서 배제된 여성 노동자의 일상을 통해 그동

안 도시연구에서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남성중심적 시각을 역으로 포착했다. 기존 '섬유 도시' 정체성에서 여성 노동자는 기업의 성과와 국가의 성장을 설명하는 보충적 역할을 할 뿐이었다는 것은 기존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남성 중심적이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택적 재현의 과정으로 탄생한 도시의 기억이 간과했던 요소들을 파악하고, 도시 아카이빙을 통해 여성 노동자를 공간의 행위자로 호명하는 대안적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더불어 공간을 바라보는 대안적 방법은 비단 여성을 주체로 호명할 때에만 적합한 것은 아니며, 기억의 정치와 선택적 재현의 대항 담론으로서 제안된 것임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시의 가치가 경제적으로 환원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간이 의도적으로 편집되어 하나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헤게모니적 동일화를 지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시 아카이빙을 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두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인터뷰 대상자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없기에 대구 섬유산업에 종사한 모든 여성 노동자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둘째, 여성을 공간의 주체로 호명하는 대안적 방법을 제시했지만, 이는 하나의 이론이기보다 대항적 성격의 담론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후속 연구가 있다면 도시의 선택적 재현에 대한 대안적 방법을 구체화하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여성 노동자, 도시 아카이브, 섬유산업, 선택적 재현, 기억의 정치, 대구시**

**학 번 : 2019-27051**

#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 대상 및 범위 ····· 3
1. 연구 대상 ····· 3
2. 연구 범위 ····· 6

제2장 이론적 배경 ····· 7
제1절 기억의 선택적 재현 ····· 7
제2절 여성·노동·공간에 대한 담론 ····· 10
1. 여성 노동 ····· 10
2. 여성 공간 ····· 13

제3장 연구의 방법 ····· 17
제1절 연구의 설계 및 방법론 ····· 17
제2절 분석틀 ····· 19

제4장 '섬유 도시' 개요 ····· 21
제1절 '섬유 도시' 대구 역사 ····· 21
제2절 '섬유 도시'의 선택적 재현 ····· 25

제5장 '섬유 도시' 재현에 대한 비판 ····· 29
제1절 섬유산업의 획일적 재현에 대한 비판 ····· 29
1. 다양한 섬유 공정 ····· 29

2. 생산직에 가려진 사무직 ····· 31
3. 섬유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 34
4. 폐쇄적이었던 기숙사? ····· 35
**제2절 여성 노동자의 다중정체성 ····· 38**
1. 노동자의 정체성 ····· 38
2. 기술자의 정체성 ····· 40
3. 엄마 혹은 가장의 정체성 ····· 43
4. 딸 혹은 맏이의 정체성 ····· 46
5. 학생의 정체성 ····· 49
6. 경제주체로의 성장 ····· 50
**제3절 소결 ····· 52**

**제6장 공간의 주체로서 '여성 노동자' ····· 54**
**제1절 지역이동 및 노동의 시작 ····· 54**
1. 대구로의 이동 ····· 54
2. 섬유산업 종사 계기 ····· 55
**제2절 근무환경 ····· 60**
1. 공장 시설 ····· 60
2. 월급 및 복지 ····· 62
3. 열악했던 근무환경 ····· 67
**제3절 노동자의 일상 ····· 73**
1. 근무 일상 ····· 73
2. 기숙사 생활 ····· 82
3. 여가 및 통행금지 ····· 86
4. 학생과 교육에 대한 동경 ····· 87
**제4절 '섬유 도시' 성장과 쇠퇴 ····· 91**
1. 호황기 ····· 91
2. 쇠퇴기 ····· 93

제5절 소결 ····· 96

제7장 결론 ····· 98
제1절 연구 요약 및 함의 ····· 98
제2절 연구의 한계 ····· 100

참고문헌 ····· 102
Abstract ····· 108

# 표 목 차

[표 1] 인터뷰 응답자 ····· 4
[표 2] 일제강점기 대구 섬유산업 연혁 ····· 22
[표 3] 대구 근대산업관광 세부추진계획 ····· 25
[표 4] 모직공장 작업 공정 ····· 30
[표 5] 두 동생 뒷바라지 한 여공, 초등학교 졸업 후 입사 46
[표 6] 노동실태 ····· 61
[표 7] 응답자별 월급 ····· 63
[표 8] 돌아가는 기계에 소녀공 참사 ····· 68
[표 9] 펠드에 감겨 여공즉사 ····· 69
[표 10] 대구제사회사 여공숙사에 대화 ····· 70
[표 11] 노동실태 ····· 72
[표 12] 노동실태 ····· 73
[표 13] 여성 노동자 D의 하루 ····· 75
[표 14] 산업체 고등학교 학생 C의 하루 ····· 76
[표 15] 근로자들 직장선택 달라진다 ····· 79
[표 16] 노동실태 ····· 91
[표 17] 대구 경제에 구름이 안 걷힌다 ····· 93

#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 20
[그림 2] 대구 삼성 창조 캠퍼스 전경 ····· 24
[그림 3] 대구시 슬로건 ····· 25
[그림 4] 캐릭터 ‘패션이’ ····· 25
[그림 5] 섬유박물관에 소개된 1940년대 기업 ····· 26
[그림 6] B 인터뷰 중 휴지로 접은 장미 ····· 36
[그림 7] 연못이 있었던 공장 ····· 62
[그림 8] 기숙사 앞 잔디밭 ····· 62
[그림 9] B가 그린 공장과 기숙사 위치 ····· 84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국가의 발전'이라는 거대한 목표 의식 아래 근대화 과정을 겪게 되었다. 1960년대 한국경제는 정부 주도하에 공업부문을 주축으로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오직 온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국력 배양에 박차를 가해 나갈 때 어떠한 어려움도 뚫고 우리는 기필코 선진국 대열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박정희, 민주공화당 창당 제16주년 치사)."*

한국전쟁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후진국'으로 규정하고 이를 탈피하기 위한 전략적 담론으로 근대화를 내세웠다. 이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가 성장의 목표를 이룰 주체를 '우리', '국민', '한 덩어리'로 설정하면서, 발전주의적 목표가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목표가 아닌 모두의 것임을 강조했다(김종태, 2014). 이후 국가 주도의 산업화 전략을 통해 한국경제는 고도성장을 달성했다. 1970년대 중반까지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이후 포항·울산·창원·여천 등 남동임해공업지역에서 중화학공업이 급속도로 성장했다(이철우 외, 1999).

이 중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대표하는 대구 섬유산업은 1950년대부터 급격히 성장하여 1955년 처음으로 섬유제품을 수출, 1971년에는 우리나라 총수출의 41.6%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다. 이후 1987년에는 100억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려 이탈리아와 독일에 이어 세계 3대 섬유 수출국으로 부상하며 '섬유 도시'로 자리매김했다(안재훈, 1992).

한편, 대구가 '섬유 도시'가 되기까지 그 이면에는 수많은 노동력이

존재한다. 1960년대 말 섬유산업 종사자는 17,097명에 달했으며 이 중 74.24%인 12,689명이 여성 노동자였다(대구여성가족재단, 2015). 이후 1970년대 중반, 정부가 노동력 확보를 위해 산업체 특별학급 및 부설 학교로 설립한 이래로 많은 여성이 공적 노동 자리로 진출했다(이철우 외, 1999). 따라서 당시 노동자의 삶을 이해하는 것, 특히 노동자 대다수를 차지했던 여성 노동자들을 기억하는 것은, 전체 노동자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김상숙, 2004).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관점으로 공간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것은 현재 숫자로 환원된 공간의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하지만 현재 대구라는 공간의 이야기는 기업의 숫자와 이력에 의해 단편적으로 재현되었다.

오늘날 대구의 슬로건인 'Colorful DAEGU'(컬러풀 대구)와 대표 캐릭터인 '패션이'는 대구가 '섬유 도시'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1960년대 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되면서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대표하는 대구의 섬유산업은 한국 경제발전의 주축이었으며, 이는 오늘날 대구의 중요한 산업유산이 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산업유산은  정부와 일부 기업의 주도하에 특정한 수치로 환원되면서 그 성장이력 이면의  여성 노동자는 비가시화되었다. 때문에 '섬유 도시'의 공간 이야기는 산업 역군이었던 여성 노동자가 아닌 기업과 수출량을 중심으로 채워갔다. 이는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여성이 공간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는 오랜 시간 과거의 흔적이 겹겹이 쌓인 공간이다.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는 도시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따라서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가지는 다양한 층위를 해석해야 하지만, 현재 네 글자로 환원되는 '섬유 도시'는 공간의 다양한 층위를 오히려 단편적인 이미지로 고착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통해 내용을 이어간다. 첫째, 대구가 지닌 '섬유 도시' 정체성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현재 대구는 도시의 주축을 이루었던 섬유산업을 근대 산업

유산으로 정하고, 다양한 문화적 컨텐츠로 재활용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도시의 오랜 역사가 '섬유 도시'로 환원되기까지 수많은 이야기가 중첩되어 있지만, 현재 산업의 주축을 이룬 노동자의 이야기는 비가시화되고, 가시화되는 것은 기업의 이름과 숫자로 환원된 이들의 성장 이력에 불과하다. 따라서 첫 번째 연구 질문은 얼마나 길고 중요한 이야기가 '섬유 도시'로 단순 환원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하위질문을 던진다. 1) '섬유 도시' 대구는 어떻게 발전했는가?, 2) '섬유 도시'는 어떻게 기억되는가?

이상의 연구 질문은 현재 도시의 재현이 근대 도시 발전의 주축을 기업과 경제라는 키워드로 환원시킴으로써 근대 발전주의 담론을 전유해 온 남성 중심적 시각을 내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둘째, 여성을 공간의 주체로 호명했을 때 대구는 어떤 공간으로 재현되는가? 앞선 연구 질문에서 도시의 획일화된 재현을 비판했다면, 두 번째 연구 질문은 공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한다. 여성을 공간의 주체로 호명한다면 그간 도시계획이 간과했던 요소가 드러나며, 이는 도시를 바라보는 보편적 시각에 의문을 던지면서 공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대안적 시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제2절 연구 대상 및 범위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각종 문헌 자료와 현장답사를 통해 대구의 섬유산업과 노동자들이 어떻게 기록되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 문헌부터 시작해 단행본, 관련 기사와 지자체에서 발간한 보고서 모두를 폭넓게 수집했다. 둘째는 섬유산업 여성 노동자와 그 주변 인물을 인터뷰한다. 인터뷰를 통해 여성 노동자

들의 일상과 노동 경험,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주변 인물들의 인터뷰를 통해 섬유산업을 다양한 시각에서 재현하고자 했다.

응답자 선정은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대구 출신의 여성 노동자에 한정 짓지 않고 대구에서 섬유산업에 종사한 여성 노동자 혹은 주변인을 대상자로 모집했다. 섬유산업의 다양한 공정과 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구여성가족재단 및 고등학교 동문회 두 곳을 통해 계층화된 표본추출을 택했으며, 이후 눈덩이 표집 방식을 통해 인터뷰 응답자를 연쇄적으로 소개받았다.

<표 1> 인터뷰 응답자

| 응답자 | 출신 지역 | 특이사항 |
|---|---|---|
| A/68(여) | 경남 밀양시 | 섬유산업 27년 종사, 現청소 노동자 |
| B/57(여) | 경북 고령군 | 산업체 고등학교 출신, 現청소 노동자 |
| C/55(여) | 경북 군위군 | 섬유산업 36년 종사 |
| D/56(여) | 경남 김해시 | 섬유산업 27년 종사 |
| E/62(여) | 경북 영천시 | 섬유산업 19년 종사 |
| F/70대(남) | 경남 합천군 | 사업체 ○○사이징 운영 |
| G/60(남) | 대구광역시 | 부친이 △△방직 운영 |
| H/53(남) | 대구광역시 | ◇◇물산 28년 근무 |

(1) A(68세)

대구여성가족재단의 소개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A는 경상남도 밀양군 단장면에서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다. 열네 살에 대구로 온 뒤 섬유산업에는 15살부터 뛰어들었다. 먹고 살기 위해 섬유공장에 출근을 시작했으며, 25살에 결혼을 하면서 육아로 6년을 쉬었다. 이후 1986년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청소 노동자로 근무 중이다.

(2) B(57세)

B는 산업체 고등학교 동문회를 통해 모집했다.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3녀 1남 중 첫째로 태어났다.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섬유회사에 취직하면서 대구로 이동했다. 이후 산업체 고등학교로 진학, 3년 동안 섬유공장에 근무하며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안경공장을 거쳐 꽃집을 운영하다 현재는 청소 노동자로 근무 중이다.

(3) C(55세)

C는 고등학교 동문회를 통해 모집했다. 경상북도 군위군에서 첫째로 태어났다. 두 돌이 되기 전 대구로 이주했다. 상업고등학교 졸업 후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했지만 이후 섬유회사에 사무직으로 입사해 지금까지 36년 동안 근무 중이며, '섬유 설계'를 맡고 있다.

(4) D(56세)

C의 소개로 모집한 D는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에서 3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대학입시 실패 후 학원비를 벌기 위해 대구로 올라와 섬유공장에 취직했다. 23살에 결혼을 하고서 두 자녀를 얻었지만, 결혼한 지 5년 5개월 됐을 무렵 남편과 사별 후 다시 섬유공장에 취직해 기술을 익히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근무 중이다.

(5) E(62세)

E는 경상북도 영천시에서 2남 2녀 중 첫째로 태어났다. 14살이 되던 해에 가족 모두 대구로 이주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집안의 보탬이 되기 위해 15살에 섬유공장에 취직해 19년 동안 근무했다.

(6) F(남, 70대 중반)

D의 소개로 모집한 F는 서울에서 해운업에 12년 종사 후 1987년 대구로 내려와 섬유 사이징 회사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35년 동안 회사를 운영 중이다.

(7) G(남, 60세)

과거 부친이 북구 침산동 일대에 골덴 원단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했다. 어릴 적 아버지 회사를 둘러본 기억이 있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통행 금지가 있던 시절 아버지 회사의 자동차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던 일을 뽑았다.

(8) H(남, 53세)

대학에서 섬유공학을 전공한 후 94년도에 섬유회사에 입사해 지금까지 28년 동안 근무 중이다.

## 2. 연구 범위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대구광역시로 한정된다. 본 연구에서의 여성 노동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대구로 이주했기 때문에 '대구 출신'이라 한정할 수 없기에, 여성 노동자들의 일상 공간이었던 대구가 중심이 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문헌 조사의 경우 1876년 개항 이후 일본 자본이 대구에 진출한 1893년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개항 직후 섬유산업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둘째, 여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뷰에서는 응답자의 시간에 따라 시간적 범위가 달라지기에 시간적 범위를 따로 한정 짓지 않았다. 여성 노동자의 노동 계기부터 노동의 의미와 현재의 삶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이다.

# 제2장 이론적 배경

## 제1절 기억의 선택적 재현

공간은 오랜 역사와 함께 수많은 주체와 권력의 개입으로 점철된다. 공간은 선택적으로 역사를 기억하거나 혹은 배제함으로 규정되며, 선택받은 역사는 공간의 이미지를 고착화한다. 이러한 사회·공간적 흐름에서 제기되는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억의 재현방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프랑스 사회학자 모리스 알박스(Morris Halbwachs)는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을 통해 기억이 사회적으로 구성됨을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된 기억은 '사회적 틀'(social framework)을 통해 정제된 결과물이며, 사회적 틀 내에서 형성된 집단의 기억은 집단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을 형성한다(Halbwachs, 1992). 알박스의 논의에 따르면 기억의 재구성 과정은 무엇을 망각할 것인가와 맞닿아 있으며, 이는 기억을 선택하는 주체의 문제와 결부된다(심주형, 2003). 즉, 기억은 권력에 따라 재구성되며 그 결과 선택받지 못한 기억은 주변화되어 서서히 잊혀진다.

한편, Edensor(2005)은 기억이 철저한 정치적인 과정이며 끊임없는 논쟁 속에 유동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으로 표현한다. 기억은 구성됨과 동시에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강화되며,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사회적 맥락 속에서 기억이 작동하는 방식을 주목하는 많은 연구(Halbwachs, 1992; Schwartz, 1996; 윤지환·김숙진, 2000; 신진숙, 2018; 백일순, 2021)는 기억이 집단에 의해 강조, 변형, 수정 혹은 배제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기억의 정치는 오늘날 도시 공간에서도 일어난다. 도시는 수많은 주체의 일상 공간인 만큼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권력 집단의 정당화된 기억 속에 단편적으로 재현된다. 즉 공간을 둘러싼 대중의 인식과 담론은 사회적 권력과 지식 생산의 열쇠를 가진 집단에 의해 조직되어 사회 주류 담론으로 기능한다(윤지환·김숙진, 2020). 이는 도시 공간을 각인된 이미지로 재현함으로써 개인에게 공간의 이미지를 고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하지만 도시 공간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의도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일부 선택된 기억을 위한 기념비적인 재현일 뿐, 오히려 선택받지 못한 다른 주체들을 고립시키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기억의 정치 속에 선택받지 못한 기억은 어떻게 재현될 수 있을까? 도시가 다층적 기억의 집합체라는 점에서 공간에 대한 지배적인 담론에 대비되는 대안적인 관점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공간 주체들의 삶과 기억과 같은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이기형, 2008). 이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단순 서술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가 발현되는 정치적 양상에 주목하고, 재현의 방식에서 집단의 기억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데 있다(권용석, 2018). 이때 비주류 집단의 기억은 공인된 기억의 대항 담론으로 기능하게 된다.

공간의 기억과 관련한 연구에서 신진숙(2018)은 강원남부탄광지역을 중심으로 근대 산업 폐허로서 탄광촌의 장소성을 고찰했다. 그는 산업 폐허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기억하기의 정치' 과정에서 선택된 기억이 억압하는 대항 기억의 중요성을 드러냈다. 그의 논문은 폐허 속에 남겨진 다양한 삶의 흔적을 통해 제도화된 공통의 기억에 대한 대항 기억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산업유산경관을 둘러싸고 '폐허의 장소를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의 문제는 대구 섬유산업의 재현과 같은 맥락에서 작동할 수 있다.

윤지환·김숙진(2020)은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나타난 하시마섬의 선택적 역사 해석과 재현 과정에 주목했다. 이들은 일본이 정제된 역사를 선택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의 이해와 장소에 내재된 다층적 기억의 속성을 배제했음을 비판하면서, 선

택적 재현의 대안으로 기억의 다층적 논의를 제안했다. 이들 논문은 공식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기억에 대한 성찰적 해석을 통해 공간을 다양한 층위에서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 논문은 공간의 다층적 해석을 위한 방법으로 해당 논문을 참고하였다.

백일순(2021)은 파주 용주골 미군 기지촌을 사례로 기억의 정치가 인정과 재현의 정치와 함께 공간에서 드러나는 과정을 고찰했다. 미군 기지촌이 가지는 공간적 특성과 로컬리티가 미군 위안부에게 있었던 폭력과 억압을 의도적으로 삭제하는 선택적 재현의 과정을 거쳤음을 드러냄과 동시에 위안부 여성의 일상을 기반으로 공간적 의미를 고찰했다. 그의 논문은 기지촌 마을 구성원과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개인의 기억을 공간적 관점에서 복원함으로 기존 연구에서 비가시화되었던 공간 행위자들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욱이 그의 연구가 주목되는 점은 기지촌을 여성의 억압과 착취로 점철된 젠더화된 공간으로 해석하는 것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일상 공간으로 재해석했다는 것이다. 기지촌 여성의 일상을 통해 공간을 해석한 결과 다양한 공간 행위자가 드러났다는 점은 기존 공간의 해석이 기억의 주체인 남성의 시각에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공간에 대한 인식과 담론은 공적인 주체에 의해 의도적으로 편집된다. 하지만 도시에서 구성된 다양한 기억들은 교차되면서 도시 공간을 재창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공간의 헤게모니적 동일화를 지양하기 위해 '여성을 공간의 주체로 호명'하는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섬유 도시의 재현 속 기억의 정치와 선택적 재현의 양상은 한 도시의 발전사를 넘어 국가 주도하에 동원됐던 다양한 공간 주체들을 돌이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앞으로 어떻게 도시를 기억하고 해석하는가는 개인의 몫이지만, 기억의 획일적 재현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오류를 저지하는 것은 도시계획가의 몫일 것이다. 따라서 기억의 공간적 재현에 있어 비가시화된 주체를 드러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여성 노동자를 공간의 주체로 호명하고자 한다. 이는 도시 공간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해석하여 그동

안 공간의 재현과 관련한 젠더편향적 관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제2절 여성·노동·공간에 대한 담론

### 1. 여성 노동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가의 발전을 위한 담론으로 '근대화'를 내세웠다. 1960년대부터 국가주도 산업화 전략으로 한국경제는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이때 필요한 저임금 노동력의 원천으로 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해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대거 유입되었다. 당시 경제개발정책의 기조에는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을 무한대로 동원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한마디로, 1960년대 산업화 초기부터 정부는 여성을 저임금·미숙련 노동력 혹은 산업예비군으로 규정했다(김미숙, 2006).

우리나라가 근대 사회로 전환하던 1960-70년에 들어서 많은 농촌 여성들은 도시로 이주하여 노동자가 되었다. 당시 제조업 여성 취업자는 1960년 전체 여성 노동자의 6.3%에서 1975년 16.8%로 증가했으며, 제조업 부문 내 성별도 여성 비율이 1960년 26.6%에서 1975년에는 37.8%로 증가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섬유·의복, 가발, 신발, 전기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 수출지향적 성장전략을 전개했으며, 이때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여성노동력을 충원했다(장하진 외, 2011).

근대화를 거치면서 노동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의미가 되었다. 이전까지 경제주체는 오로지 남성으로 여겨졌지만, 여성도 공적인 일자리에 진출하게 되면서 경제주체가 되었다. 또한, 여성에게 노동은 가난에서 벗어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동시에 경제적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여성 노동자들을 '공순이', '여공'으로 부르며 단

순 노동자로 위치시키는 사회적 시선은 여성 노동의 다차원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축소했다.

근대화와 산업화 시기 여성 노동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노동자의 노동 특성과 착취구조에 초점을 둔 연구(강이수, 1993; 이정옥, 1988, 박혜영·박금식, 2015)를 들 수 있다. 강이수(1993)는 1920년부터 1960년까지 이르는 여성 노동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다루었으며, 이정옥(1988)은 성별에 의한 차별적 시선이 여성 노동의 가치를 저평가하여 결과적으로 여성 노동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여성 노동이 주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강영경 외, 2017).

한편, 미시적인 차원에서 여성 노동실태와 경험을 다룬 연구(김원, 2005; 이호연, 2005; 윤정란, 2006; 이희영, 2008, 조진희, 2008; 신순애, 2014; 박혜영·박금식, 2015)에서 김원(2005)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는 산업화 시기 여성 노동자를 둘러싼 담론을 분석하면서 기존 담론의 남성주의적 시각을 비판했다. 그는 여성 노동자를 둘러싼‘ 희생양 담론’과 같이 그동안 여성 노동자를 다룬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여성 노동 담론을 아래로부터 분석해 노동자의 주체성을 조명했다.

이호연(2005)은 1920-30년대 식민지 방직공장에서 여성 노동자가 받는 차별적 구조와 함께 노동현장에서의 저항을 드러내어 여성 노동자의 주체적인 모습을 다루었다. 같은 맥락에서 윤정란(2006)은 1920-30년대 식민지 시대 제사공장 여성 노동자 연구에서 공장에서의 경험은 여성 노동자들이 근대 자아의식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밝혔다. 이들의 논문은 식민지 시기 여성 노동을 다루면서, 공장에서의 일상을 단순 노동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희영(2008)은 1950년대 광주 전남방직 여성 노동자 구술을 통해 공장노동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고찰했다. 당시 공장노동은 경제적 의미를 내포했으며, 여성 노동자들은 사회적 차별의 시선을 견뎌야 했다. 또한, 한국전쟁 이전부터 계속된 여성 노동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양섭(2014)도 그의 논문에서

여성 노동의 재조명을 강조했다. 일제강점기 인천 성냥공장을 사례로 여성 노동자의 시선에서 노동자의 삶에 내재된 주체적 역량을 다방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했다. 이들의 논문은 여성 노동에 대한 기존 담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여성 노동에 대한 다차원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지가 되는 대구 섬유산업의 여성 노동과 관련한 연구(김상숙, 2004, 2018; 이정희, 2016, 김성은, 2016)에서 김상숙(2004)은 1970-80년대 대구지역 섬유산업 여성 노동자들의 생활과 의식·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여성 노동자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했다. 그는 여성 노동자의 일상생활과 주관적 경험에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구술사적 방법을 통해 기록되지 않은 여성의 일상을 기록했다. 그의 연구는 노동 자체보다는 여성 노동운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시대를 재구성하면서 기존 연구의 남성주의적 관점을 드러냈다.

이정희(2016)는 일제강점기 대구 제사공장의 현황과 여성 노동자의 실태를 분석했다. 그는 일본인 소유의 제사공장 현황과 공장에 고용된 여성 노동자의 실태를 분석하면서 여성 노동이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성 노동자를 단순 피해자의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다. 여성 노동자를 피해자의 프레임으로만 재현하는 것은, 이들이 가진 다중정체성을 은폐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여성이 가진 다중정체성을 드러낸 논문으로 유가효 외(1991)를 들 수 있다. 그는 대구지역 여성 노동에서 생산직 기혼여성의 생활실태를 일터와 가정생활의 양측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생산직 기혼여성이 가사노동과 출산·양육, 그리고 직장의 일까지 삼중 노동 부담을 안고 있음을 드러내며 여성 노동에 대한 다차원적인 해석을 시도했다. 더욱이 그의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여성을 단순 노동자로 한정짓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여성의 역할을 노동자로 국한하지 않고 일상생활과 일터, 그리고 가정공간에서 교차적으로 분석했다는 점

이다.

여성 노동 담론은 노동의 착취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고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아야 한다. 노동 조건이 열악했음은 사실이지만, 여성 노동자들이 겪은 불합리한 요소들을 단순 나열하거나 고발하는 것은 여성 노동자를 단순 피해자 혹은 수동적인 이미지로 고착화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노동이 일상생활에서 가지는 의미와 지역사회의 공로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자를 국가 성장의 주체로 호명해야 한다. 특히 국가의 강력한 발전주의 계획 아래 존재했던 여성 노동은 도시와 국가의 성장을 이룩하는 주요 핵심 요인이었지만, 그동안 도시의 발전과는 별개의 영역으로 다루어졌다. 여성의 노동에서는 노동자 혹은 노동 자체에 초점을 둔 탓에 공간적 관점이 배제되었다.

여성 노동을 공간적 관점에서 비춘다면 그간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기존 도시 재현에 방법론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성의 존재를 다순 가시화하는 것은 여성의 역사를 단순 발굴하는 것에 그칠 뿐이므로 도시 공간과 여성의 노동을 각각 독립된 영역이 아닌 상호 교환적인 관점에서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 2. 여성 공간

최근 남성중심의 공간 재현에서 여성 가시화 전략의 일환으로 여성 공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공적 공간에서 여성은 '보호받아야 하는 약자'에 불과했다. 도시 산책자를 뜻하는 프랑스어 '플라뇌르(Flaneur)'가 남성형 명사인 것에서 알 수 있듯, 도시 공간을 거니는 사람은 그동안 남성으로 표현되었다. 이는 공적 공간이 남성 권력자에 의해 소유되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여성에게 허락된 공간은 사적 공간인 집으로 여겨지면서 가정과 사회의 분리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공간이 분리되기 시작했다.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은 이어서 주체와 객체를 분리하고, 더 나아가 주관성과 객관성의 양분론을 낳는다. 계속 진행되는 이분법의 구

조 속에서 남성은 주체로 자리하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식의 주체인 남성과 그 객체인 여성의 대립으로 사회구도를 설정한다. 그 결과 근대국가의 남성성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며, 공간의 주인은 자연스레 남성이 된 것이다(박의경, 2002). 반면 여성에게 허락된 공간은 사적 공간이었기에 여성은 공적 공간에서 주체가 된 남성을 보조하는 역할로 표현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 공간은 사적 공간인 '가정'에서 근대화를 통해 교육·소비·노동공간을 거쳐 예술·건축·종교 공간 등으로 확장된다. 이상의 여성 공간을 방법론적 개념으로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개념을 제시해보자면, 이들은 젠더와 하위성의 입장에서 규정된다. 먼저 사적 공간인 가정은 모성과 가사노동공간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가부장제와 국민국가 형성의 이데올로기 하에서 현모양처 논리가 작동됨으로써 여성은 국민 만들기의 일원이 되었다(태혜숙, 2004). 더욱이 가정에서의 가사노동은 가족을 위한 '당연한' 행위로 여겨지면서 사적 공간에서도 여성은 비가시화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 들어 산업사회로의 전환은 여성들을 사적 공간에서 공적 노동공간으로 이끌었다. 특히 국가발전 담론 아래 동원되었던 여성들은 공장이라는 공간에서 경제주체로 성장해갔다. 여성이 접하게 된 노동공간은 여성에게 규율과 착취의 공간이기도 했으나, 가난으로부터 해방 및 경제적 독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또한, 국가는 학생들을 노동력으로 동원하기 위해 교육공간을 설립하기도 했다. 이때 학교라는 공적 공간은 정신적·신체적 경험을 하게 되는 자유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훈육과 통제의 공간이기도 했다. 특히 여성은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되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교정과 순치화 과정에 노출되기도 했다(태혜숙, 2004).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급속한 산업화를 시도한 우리나라는 여성의 공적 노동공간으로의 진출로 여성 경제 행위 또한 활발히 진행되었다(조은, 1983). 이는 여성들은 남성과 동일하게 공적 공간의 주체로 호명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공간 연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

고 도시 공간을 바라보는 젠더편향적 관점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주요 담론이 되지 못했다.

페미니스트 지리학자 린다 맥도웰(Linda McDowell, 2010)은 장소가 사회·공간적 실천과 밀접한 관계에서 권력과 배제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다양한 스케일을 만들어가고, 공간적 스케일에서 장소를 다양한 사회적 흐름과 상호작용의 상호교차 지점으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도시 공간은 여성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차별과 배제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해방의 공간이다. 따라서 차별과 배제의 공간을 불평등한 구조로만 드러내기보다 공간의 대안적 방법을 통한 공간의 재해석이 필요하다.

이현재(2012)는 여성 공간이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어왔으며, 향후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하는가를 탐색했다. 그는 공간의 이분법적 젠더구조와 자본주의 구조를 비판하는 담론들이 여성 공간을 예외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여성 공간은 그동안 빈 공간으로 그려지거나 남성 공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치가 하위 고정되는 공간임을 주장했다. 그의 연구는 그동안 남성주의적 지배적 담론에 의해 여성 공간이 어떤 방식으로 배제되는지를 드러내어 공간 구조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상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편, 도시 공간에 대한 젠더적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박의경, 2002; 태혜숙, 2004; 김영화, 2010; 조규원·김태형, 2017)에서 도시계획의 관점으로 공간을 주변화된 시각에서 해석한 박은선(2019)은 옥바라지 골목을 사례로 그동안 도시계획 주체와 도시 저항 운동 역사 기록의 주체가 남성 중심임을 비판했다. 그는 도시의 가치가 오로지 경제적 가치로 환원됨에 따라 소수의 이야기가 비가시화됨을 주장했다. 따라서 페미니스트 인식론 안에서 도시 문제를 다루면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도시 규범을 도시 주변부의 시선을 통해 재사고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더욱이 그의 연구가 주목되는 지점은 그동안 도시계획에서 도시 공간을 둘러싼 보통의 지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부족했음을 지

적했다는 점이다.

이상의 논리에 따르면 공간을 여성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은 남성의 시선으로 재현되는 젠더편향적인 공간 해석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여성의 사회 진출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분법적 공간 논리에 따라 여성은 사적 공간에 한정되어 재현된다. 여성의 공적 공간 진출은 국가에 의해 이루어진 공식적인 과정이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노동은 공간과 분리된 채 노동 자체에만 집중되어 단편적으로 해석되었다. 그 결과 여성은 열악한 환경에서 힘겹게 일하는 노동자로 한정되어 재현될 뿐 아니라, 남성주의적 공간 해석 속에 보충적인 존재로 여겨져 온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 노동자를 공간의 주체로 호명하여 도시 공간을 재해석하고자 한다.

# 제3장 연구의 방법

## 제1절 연구의 설계 및 방법론

본 연구는 대구의 '섬유 도시' 정체성이 드러내는 단편적 재현을 비판하고, 그간 공간의 주체로 호명되지 않았던 여성 노동자를 통해 도시공간이 가지는 다양한 층위를 해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대구시에서 섬유산업을 재현하는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박물관 혹은 전시관 답사, 각종 문헌 자료를 통해 찾을 수 있는 과거 자료부터 최신 자료까지를 모두 활용했다. 특히 특히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과거의 정보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석하고자 했으며, 문헌 자료는 선행연구를 포함해 각종 저널과 에세이, 기관 자료와 조선일보 아카이빙 서비스를 통해 구축했다. 하지만 조선일보 창간 이전인 1920년 이전의 기사는 찾을 수가 없으므로, 해당 시기 이전의 내용이 부족함을 미리 밝힌다.

한편, 본 연구는 도시 아카이브(Urban Archives) 방법을 통해 공간의 이야기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한다. 아카이브는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역사적 내용 자체를 말하거나 역사적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며, 자료의 평가에서 분류, 보존과 활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업을 통틀어 아우르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아카이브 구축은 해당 정보에 대한 의미와 기억의 체계화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과거로부터의 경험과 가치를 발굴해내어 미래까지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오동욱, 2018).

따라서 도시가 지속 가능한 질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시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며, 그 이유는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도시역사의 보존을 위해서다. 도시의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

의 과거 시대적·사회적 배경과 환경을 이해해야만 한다. 둘째, 도시의 경제적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도시의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각종 사업은 무엇보다 도시의 정체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도시 아카이브는 특정 지역에 가치를 부여해 차별화된 도시경영전략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이 될 수 있다. 셋째, 도시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도시 대부분은 도심 공동화 현상을 겪고 난 후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중 한 방법으로 도시재생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때 도시 아카이빙을 통해 도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으며 이는 도시발전과 미래 도시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도시 자산이 된다(여진원·장우권, 2013). 마지막으로 도시 아카이빙은 도시의 다차원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도시의 역사를 비롯한 각종 재현은 특정한 관점에서 서술되었기에 도시 아카이브 방법은 도시의 단편적인 재현에 대한 대항담론으로서 역할이 가능하다. 따라서 도시 아카이브는 도시에서 비가시화된 주체의 이야기를 통해 도시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도시의 경험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포착되는 도시공간 이면에 가려진 주변부 집단의 일상과 도시 경험을 통해 도시의 지속적인 가치를 재창조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기억은 단순히 역사 혹은 시간성에만 연관된 것이 아닌 장소와도 밀접하게 관련되기에(신지은, 2011) 도시의 역사·문화·경관을 기록하는 것은 미래 도시계획의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연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이상의 논리에 따라 본 연구는 호황기였던 섬유산업 자본축적의 현장에서 노동자이자 시민, 학생이었고 동시에 누군가의 딸이자 엄마, 아내 그리고 친구였던 여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공간의 이야기를 구축한다. 일반적으로 기억은 장소-기반으로 구성(Casey, 1987)된다는 점에서 축약된 도시의 이야기를 구축하는 것은 향후 도시재생 및 도시 컨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산업도시에서 타자였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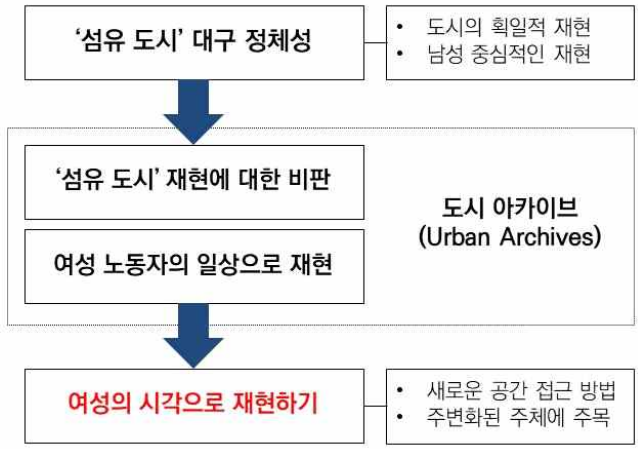
여성 노동자들을 주체로 호명하는 것은 그간 여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도시 연구에 새로운 연구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도시 아카이브는 지금껏 도시계획 분야에서 활용되지 못한 채 다양한 학문 분과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된 자료를 활용하는 수준에 그쳤다. 따라서 도시 아카이빙은 하나의 방법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다양한 학문 분야들과 학제적 연구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도시의 다양한 주체의 일상과 해석을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도시 아카이브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도시 아카이브 구축이 늦어질수록 도시 주체들의 기억이 희미해져 자료 멸실의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이에 따른 복원 작업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심의(IRB)의 승인을 받은 후 인터뷰 응답자를 모집했으며, 자발적으로 동의한 참여자에 대해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반구조화된 인터뷰는 구조화된 인터뷰에 비해 연구 참여자가 답변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으며, 본인의 지식과 정보를 보다 심층적이고 폭넓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유기웅 외, 2018). 인터뷰는 응답자 B를 제외하고 모두 1:1로 진행되었으며, 1인당 평균 86분 진행했다. 인터뷰 진행 후 모든 내용을 전사하여 줄단위 분석을 통해 주제별로 해당하는 응답을 분류했다.

## 제2절 분석틀

본 연구의 분석틀은 <그림 1>과 같다. 기존 기업 중심적으로 이루어졌던 대구 섬유산업의 재현방식을 살펴보고 여성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섬유산업 노동자들의 노동 경험과 일상을 여성의 시각으로 풀어낸다. 여성 노동자 중 현재까지 섬유업계에 종사하는 응답자 C, D와 남성 응답자인 F, H의 응답을 통해 기존 섬유산업 재현을 비판하며

섬유산업을 재현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섬유산업에 종사했던 여성 노동자들을 일컫는 '여공'이라는 표현 대신 '여성 노동자'로 쓸 것이다. '여공'이라는 표현은 수십 년 동안 여성 노동자를 단순 미숙련 노동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기에 해당 표현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여성 노동자에 대한 고착화된 이미지를 재생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섬유산업 주체를 여성으로 호명하기에 남성의 인터뷰에는 별도로 성별을 표기했다.

# 제4장 ‘섬유 도시’ 개요

## 제1절 ‘섬유 도시’ 대구 역사

서구 산업 발달과정과 달리 우리나라는 식민지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초기 식민지 근대 산업화와 이후 자주적 근대 산업화라는 이중적 산업화를 경험했다(박재민·성종상, 2012). 한국은 1876년 개항 직후 일본계 기업이 최초로 진출하면서 근대화를 맞이했다. 1878년 일본이 국내 최초 은행인 제일국립은행(第一國立銀行) 부산지점을 낸 것을 시작으로 외국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후 외국 상업자본에 의한 침탈이 심각해지자 1880년대 중반 이후부터 토착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민족계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산업 각 부문에서 설립되었다. 이때 외국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가장 먼저 진출한 분야는 방직공업이었다. 당시 외국산 면직물이 지방 곳곳까지 퍼지자 국내 기술자 양성 및 면직공업 보급을 목적으로 1897년 대한직조공장이 설립되고, 1904년 개성에 한영서원을 설립하면서 직조공장을 병설했다(이한구, 2015).

한편, 개항 이후 부산에 집중됐던 일본 자본은 1893년 9월 대구에 진출했다. 이들은 한옥을 빌려 의약품과 잡화상을 경영하였으나 당시 대구는 외국인과의 접촉이 드물었기 때문에 일본 상인에 대한 태도는 냉담했다. 특히 1907년 2월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면서 대구의 경제는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유통과 섬유에서 많은 발전을 기록했다. 한국전쟁 이후 섬유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대구는 전후 생필품의 생산기지와 물류 중심지 기능이 강화되었고, 국가의 보호 아래 섬유산업은 1960년대 이후 지역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이병찬 외, 2006). 이렇듯 산업화는 우리나라 고도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요소였다. 특히 섬유산업은 다른 제조업과는 달리 식민지 시기부터 발전해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할 정도로 제조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었다.

일제강점기 대구·경북지역에는 정미업, 담배제조업, 제사업이 주축을 이루었다(김성은, 2016). 그중에서도 대구는 실을 만드는 생사업의 중심지였다. 대구가 생사 제조업의 중심지가 되기까지는 일본의 영향이 지대했다. 당시 일본은 일본 국내 임금 상승과 원료인 고치의 부족으로 새로운 생산지가 필요했기에 지리적으로 고치 생산에 유리하고 노동력이 풍부한 대구에 진출한 것이다. 다음 <표 2>는 일제강점기 대구 섬유산업 연혁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일제강점기 대구 섬유산업 연혁

(대구여성가족재단(2015), 김성은(2016), 이정희(2016)를 근거로 필자 재구성)

| 년도 | 이름 | 위치 |
|---|---|---|
| 1905 | 기구표백공장 | · |
| 1915 | 동양염직소 | 중구 성내동 |
| 1917 | ○중제사소 | 북구 칠성동 |
| 1918 | 야마주제사(대구제사주식회사) | 중구 동인동 |
| 1919 | 조선생사주식회사 | |
| | 가타쿠라제사(편창제사) | 중구 대봉동 |
| 1920 | 신천제사소 | 북구 칠성동 |
| 1925 | 암전제사소 | |
| 1926 | 소야전제사공장 | |
| | 산전제사공장 | 중구 삼덕동 |
| 1928 | 제제사소 | 북구 칠성동 |
| 1928 | 상신공업 | |
| | 조선방직 | |
| 1941 | 대구방직(군제제사 대구방직공장) | |
| 1945 | 칠성산업사 | |

대구 섬유산업은 1905년 최초의 섬유공장인 기구표백공장이 일본인에 의해 설립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1915년 국내자본으로 설립된 최초의 염색공장인 동양염직소가 설립되고, 1918-1919년에는 당시 대구 3대 제사공장이라 불린 야마주제사(대구제사 주식회사)와 조선생사 주식회사, 가타쿠라제사가 거대 일본 제사자본에 의해 차례대로 설립되었다. 이들은 대구 주요 제사공장 가운데 공장 총 건평의 97%, 종업원 총수의 92%, 생산총액의 97%에 달해 대구 3대 공장이라 불렸다. (이정희, 2016).

한국전쟁 이후 대구는 기존 생산라인을 유지해 섬유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김성은, 2016). 특히 국가는 전후 의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방직 긴급재건계획'을 수립하고, 이듬해 섬유공업부흥계획을 세워 본격적으로 섬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1953년과 1954년에는 각각 면방직 5개년계획이 실시되고 직물세(織物稅)가 폐지되면서 섬유산업은 호황기를 맞이했다. 국가의 계획하에 급격히 성장하는 섬유산업은 1955년 대한방직과 1956년 제일모직, 고려나일론과 한국나일론이 1957년 설립되고 같은 해 면제품 수입금지정책이 시행되면서 부흥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렇게 대구 섬유는 1950년대까지 풍부한 노동력, 저임금 등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고, 이후 본격적으로 '섬유 도시'라는 별칭을 얻게 된다(대구여성가족재단, 2015).

한편, 섬유산업은 1960년대부터 국가의 지원 아래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1965년에는 건설부고시 제1387호 공업지역 지정에 의해 '대구3공단'이 지정된다. 1968년 공업단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이후 1960년대 말 대구·경북 섬유노동자 수는 17,097명 가운데 여성은 12,689명으로 74.24%를 차지했다(대구여성가족재단, 2015; 김성은, 2016). 1971년에는 섬유산업이 우리나라 총수출의 41.6%를 차지하면서 지속적인 호황기를 맞게 된다(안재훈, 1992). 그러나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1980년 제2차 석유파동으로 침체를 겪으며 이후 대구 섬유산업은 점점 사양산업이 되기 시작했다(김성은, 2016). 1980년대 대구 섬유산업에는

경북 농촌 출신 노동자가 많았고, 10대 초반에서 20대 초반 초졸에서 중졸에 이르는 나이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 많았다. 즉 대구 섬유산업은 출가형 노동력인 농촌 출신, 낮은 연령, 낮은 학력, 미혼, 여성 노동자 비중이 높았으며 연고 채용과 산업체 고등학교 진학을 조건으로 한 모집은 노동력 유입의 주요 수단이었다(김상숙, 2004).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산업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생산량과 수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1980년대 후반에 절정에 달하지만, 고용량과 고용증가율은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선재원, 2011).

현재 대구시는 섬유산업을 근대산업유산으로 지정, 북구 칠성동·고성동·침산동 일대를 중심으로 근대산업유산 관광활성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대표적인 산업 공간으로 꼽히는 북구 침산동 제일모직 공장은 전국 각지로부터 수많은 여성이 이주해 근무하던 곳으로, 지역 및 국가발전의 주역이 되었지만 1990년 공장의 이전으로 폐쇄가 되면서 2014년 '대구삼성창조캠퍼스'로 재탄생하기 전까지 방치되었다.

<그림 2> 대구 삼성 창조 캠퍼스 전경 (2019.12.13. 저자촬영)

대구광역시 북구는 2017년 '대구근대산업유산 관광자원화'공약으로 일제강점기 최초 공단지역으로 지정되어 대구산업발전 역사와 함께한

제1공단(칠성·침산·고성동 일대)을 중심으로 특색 있는 근대산업유산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대구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공간으로 마련할 계획을 발표했다. 근대산업유산을 관광 자원화하여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근대산업유산 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22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대구 근대산업관광 세부추진계획 (출처: 대구광역시 북구청)

| 연도별 | 추진계획 |
|---|---|
| 2018년 | 대구 근대산업관광 아카이브 작업 및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 |
| 2019년 | 대구 북구 관광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br>대구 근대산업유산 관광활성화(관광트레일) 기본계획 수립 |
| 2020년 | 산업관광 콘텐츠개발사업 공모 |
| 2021년 | 대구 근대 산업유산 아카이브 구입 등 |
| 2022년 | 대구 근대 산업유산팸투어 |

## 제2절 '섬유 도시'의 선택적 재현

<그림 3> 대구시 슬로건
(출처: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

<그림 4> 캐릭터 '패션이'
(출처: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

대구는 '섬유 도시'라는 정체성 아래 도시 캐릭터와 슬로건 또한 섬유산업을 연상하게 한다. 슬로건인 'Colorful DAEGU'에는 대한민국 근대화의 심장부라는 자긍심이 담겨 있으며, 캐릭터는 한국의 전통적인 비천상(飛天像) 문양의 미적 감각을 섬유 도시 대구의 이미지와 조화되게 형상화했다.

대구에서 11월 11일은 '섬유의 날'이다. 1987년 11월 11일 섬유산업이 단일 업종으로 최초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대구는 '섬유 도시'에 걸맞게 국내 유일 섬유종합박물관을 신설하여 섬유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박물관은 패션관·산업관·섬유기업실·미래관 등으로 꾸며진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실, 어린이 체험실, 디자인 스튜디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산업관은 섬유산업에 사용된 각종 직기와 작업복을 시작으로 산업의 역사를 소개한다. 섬유박물관은 섬유산업의 역사를 조망할 수 있지만, 전시 내용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단순 나열과 숫자로 환원된 성과 그리고 기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을 뿐이었다.

<그림 5> 섬유박물관에 소개된 1940년대 기업 (2019.05.29. 저자촬영)

그렇다면 당시 여성 노동자는 어떤 모습으로 재현되었을까? 대구가 섬유 도시로 거듭난 것은 수많은 여성이 노동력으로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물관에서 여성 노동자는 주체가 되지 못한 채, 기업의 운영방식을 설명하는 사진 자료로만 등장할 뿐이었다.

기억은 사회 구성원과 상호작용을 하는 다양한 사회적 행위를 위해 필요하다(태지호, 2014; 정찬영·김주호, 2019). 얀 아스만(Jan Assmann)과 알리이다 아스만(Aleida Assmann)은 '문화적 기억'이론을 제시하면서 장소에서의 기억은 문화적 기억의 매체로 기능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모리스 알박스(Morris Halbwachs)는 집단의 기억이 개인의 기억을 보증해 줄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집단기억을 사회적 차원에서 작동되는 개념으로 제시했지만, 아스만은 알박스의 개념이 개인 기억과 집단기억을 분리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전진성, 2005; 정찬영·김주호, 2019)하면서 문화적 기억은 '의미'를 전승해주는 것으로, 사물의 상징을 통해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 의미를 넘어설 때 그 사물도 문화적 기억으로 각인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우미영, 2012; 정찬영·김주호, 2019). 문화적 기억은 '의미'를 전승해주는 것으로, 사물의 상징을 통해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 의미를 넘어설 때 그 사물도 문화적 기억으로 각인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대구의 섬유산업은 문화유산의 한 영역으로 자리하며, 문화적 기억을 통해 다양한 컨텐츠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간의 복원과 재현 과정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구는 섬유산업과 함께 발전한 곳으로, 이는 대구의 정체성 역할을 할 만큼 주요한 유산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박물관, 전시관 그리고 기념물을 통해 보존되는 집단의 단편적 기억은 산업을 이끌었던 노동자의 모습으로 통합되어 기업의 수출액 혹은 국가의 성장률을 나타내는 숫자로 환원되었다. 이는 도시의 발전 과정이 남성 중심적인 시각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며, 그 결과 발전의 주체는 오롯이 기업의 몫이 되었다.

그렇다면 도시의 정체성으로 여겨지는 섬유산업을 여성의 관점에서

재해석한다면 어떻게 재현되는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 노동자의 인터뷰를 통해 도시가 선택적으로 재현한 결과 호명되지 못한 주체를 드러냄으로써 공간의 주체였던 여성 노동자의 일상을 통해 섬유산업을 재현해보고자 한다.

# 제5장 ‘섬유 도시’ 재현에 대한 비판

## 제1절 섬유산업의 획일적 재현에 대한 비판

### 1. 다양한 섬유 공정

지금껏 섬유산업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면방직 혹은 모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김원(2005)은 그의 연구에서 작업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매우 유사한 일에 종사했음을 언급했다. 하지만 섬유산업은 업스트림(원료, 섬유사), 미들스트림(직물, 염색가공), 다운스트림(의류, 기타 섬유제품)에 이르기까지 세분화되어 있는 다단계의 생산공정으로 구성된다(박훈, 2011). 이 중 다운스트림 전까지의 공정으로는 크게 원료에서 실을 뽑아내는 방적, 그리고 이어 각종 천을 만드는 방직 공정이 있으며, 천연섬유를 만드는 면방업, 모방업, 견방업과 화학섬유를 이용해 원단을 만드는 화섬업 등으로 나뉜다. 즉, 섬유 공정은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세분화되고, 같은 계열에도 여러 공정이 있기에 섬유산업을 묘사할 때는 구체적이고 다방면의 재현이 필요하다.

> 원단을 만드는 과정 어떠냐 하면요. 첫 번째가 원료를 가지고 원료가 보면 저희는 양모를 쓰거든요. 근데 양털이 보면 혹시 양떼목장 같은 데 가보셨나요? 그러면 양들이 막 이렇게 뛰어놀면 양들이 때가 많이 묻잖아요. 그 양털의 잔물들이. 그러면 양털을 깎아서 그 원료를 그거를 가져와서 깨끗하게 세척하는 공정이 있어요. 그거를 소모라고 그래요.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놓은 원료를 가지고 실을 만드는 걸 방적이라 그러고요. 그 실을 만들면, 색을 입히는 과정을 염색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그 염색된 실을 가지고 천을 짜는 것들을 제직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제직을 한 걸 가지고 다시 예쁘게. 우리 저희 빨래하고 나면 구겨지고 하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다림질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공장을

가공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섯 개의 공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략) 근데 저희도 이제 기술력이 있는 공정도 있고 적은 공정이 있잖아요. 기술력이 있는 공정들은 염색하고 가공이라고 해서 그 공정을 놔두고 나머지 공정들은 전부 다 분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염색하고 가공하는 공정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정은 다 외주로 나가있고, 소모라는 공정이 그거는 100% 다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H, 남)

H에 따르면, 그가 속한 모직공장은 과거 소모-방적-염색-제직-가공, 총 다섯 개의 공정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기술력이 필요한 염색과 가공 공정만 남은 채 나머지 공정은 중국에 의존한다. 다음 <표 4>는 모직공장의 작업 공정을 상세하게 정리한 것이다.

<표 4> 모직공장 작업 공정(김원, 2005)

| 양모→소모→염색→전방→정방(단사)→정사(합사,연사)→검사<br>→정경→통경→제직→정포→습식→건식→수정→검사→포장→출고 |
|---|

이 섬유가 여러 가지 이게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노동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건데. (중략) 섬유 제조 중에서 제일 먼저 소재가 원사 아닙니까 원사. 방직공장에서 원사가 생산이 되면은 그걸 인자 원사를 받아서 베를 짤 수 있게끔, 제직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한다고. 바로 원사하고 제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사이징이라 카는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제직공장으로 넘어가서 제직을 하고. 제직을 한단 말은 원단을 생산한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그 원단이 필요에 따라서 가공하는 곳으로 가서 염색가공을 하지 필요하면은. 그래야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F, 남)

섬유에서 작업 공정은 세분화된다. F에 따르면 원단을 생산하는 데에는 실을 만드는 방직공장에서부터 사이징과 제직을 거쳐 염색까지 모든 단계를 거쳐야 하며 이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한편, 같은 섬

유계열 일지라도 여러 공정으로 나뉘어 있기에 업무별 서로 다른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C와 사이징 공정에 종사하는 D는 같은 계열이 근무하지만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갖는다.

## 2. 생산직에 가려진 사무직

인터뷰를 진행한 다섯 명의 여성 노동자들은 각기 다른 학력과 다른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간 섬유산업의 여성 노동자 재현에서 간과했던 가장 큰 실수는 모든 여성 노동자들을 생산직으로 재현했다는 점이다. 섬유산업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사무직에도 종사했다. 응답자 C는 27년 동안 사무직으로 종사하며 섬유설계를 담당했다.

> 저는 항상 사무직. (중략) 근데 거기서 하는 일이 경리직이 아닌 섬유를 진짜 설계를 하게 되고, 왜 집을 지으려면은 건축설계를 하죠? 그래야지 그걸 보고 현장에 사람들이 뭘 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이 원단을 만들려면 '이 원단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지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거를 제가 한 거예요. 그니까 디자인, 그니까 설계. 섬유에서는 그걸 설계라고 해요. 섬유설계 (중략) 사무직이면서 그래서 현장에 이런 거 원단 잘못 나오면 '이거이거 고쳐라, 고쳐야 된다.' 그러면은 제직되는 과정에서 실을 갖다가 직수들이 이렇게 고치고 그렇게 해요. 그래도 다 짜놓고 난 뒤에 불량이 발생하면 가공이 되기 전에 검사하고. 그런 과정들을 제가 체크하고 지시하고 그런 일 (C)

섬유산업에 종사했던 여성 사무직 노동자들은 왜 드러나지 못했을까? 지금까지의 섬유산업의 재현은 생산직 노동자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단순 노동'만 부각했기에 생산직 노동은 미숙련 노동으로 재현되었다. 이러한 재현은 당시 시대상을 반영해 희생양 이미지를 고착화한다. 즉, 여성의 업무를 단순 노동으로 재현해 여성의 노동을 제한적으로 비추는 것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생산직과 사무직의 관계는 어땠을까? 섬유산업 재현에서 사무직 노동은 생산직에 가려져 재현되지 못했지만, 근무공간에서는 오히려 사무직 노동자의 위상이 더 높았다. 이는 생산직을 향한 사회적 시선과 관련된다. '단순 노동에 불과한 생산직'이라는 고정관념이 근무공간에서도 되풀이되어 사무직과 생산직을 상하 관계 속에 위치시켰다. 사무직 노동자였던 C는 각종 패턴을 디자인하여 생산공정으로 연계해주는 섬유설계 과정을 담당했다. 작업 특성상 원단 생산 현장과 연계되는 업무였기에 생산직 파트와 마주치는 일이 잦았던 C는 생산직과 사무직 간 다툼을 자주 목격했다.

> 제가 하는 일 중에서도 무늬가 들어간 걸 제직을 하는 데 조건을 어떻게 줘야 한다 이런 게 있는데 현장 실무자와 사무직원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실무 경험으로 이야기하고, 우린 이론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싸우게 돼요.** [그럼 부서별 소통이…] 네 소통이 안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멱살 다짐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C)

C의 응답은 생산직과 사무직 간 보이지 않는 벽이 있음을 알려준다. 경험을 바탕으로 일을 진행하는 생산직과 이론을 바탕으로 두는 사무직 간 잦은 의견 충돌은 직무 간 소통 단절을 초래했다.

한편, D는 직급과 관계없이 근무공간에서는 사무직원이 실세를 쥐고 있음을 언급했다. 사무직원은 마음에 들지 않는 생산직 직원이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압박을 주기도 했다.

> 그 경리 차장님이 완전 실세인 거에요. 우리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장님이 내한테 사장 권한을 줬다' 이러는 거예요. (중략) 차장님이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말이 자기가 안 하면 업무가 다 마비가 되어버리는데, 거래처하고 뭐 다 일하니까 차장님이 이러더라고요. '사모님이 나가겠어요? 아니면 내가 나갈까요?' 이러는 데 누가 안 나가겠어요. 그럼 당연히 누가 나가겠어요? 협박 아닌 협박이죠. (D)

한편, 생산직 노동자들은 기술자임에도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여성 노동자를 '여공' 혹은 '공순이'로 부르는 경우를 포함해 성별과 상관없이 생산직은 어디에서나 선뜻 명함을 내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C는 인터뷰 종료 후 연구자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내왔다.

> "인터뷰 때 못 다한 얘기가 있어 톡 드립니다. 제가 1998년 야간 대학 다닐 때 저희 섬유과 학생들 중에 그때 당시 생산직 종사, 또 다른 전문대 졸업생도 생산직 종사자를 알게 되었는데 생산직으로 3교대를 하다 보니 월급은 많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도 현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디에 선뜻 명함을 내미는 것이 애매했던 분위기인 시절이었기에 (중략) 월급의 고저와 생산직이라는 타인의 고정관념 속에서 많은 종사자들이 기술직을 벗어나고 있는 현실 또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C)

C의 문자는 '생산직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생산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생산직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면화하여 월급이 적은 사무직으로 이직을 할 만큼 가혹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여공', '공순이'로 불리던 여성 노동자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생산직 노동자라는 '딱지'는 숨기고 싶은 것이었다.

그렇다면 사무직의 근무환경은 어땠을까? 사무직 노동자들은 생산직 노동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차별 대우를 겪었다. 사무직에서는 학력에 따른 차별대우가 존재했다. 승진에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대졸 출신에게 몰아주는 등 학력에 따른 차별을 감내해야 했다. 또한, 다른 공장으로 이직하는 것이 일종의 승진이 개념이었던 생산직과 달리 사무직은 승진에서 학력이 중요한 조건이었다.

> **얘가 학부 출신이니까 그래서 얘한테 프로젝트 이런 거 다 주고 야한테 맡기고 점점 보니까 격차가 벌어져 있는기라** (중략) 그래서 제가 '꼭 대학을 가고 맞다. 나도 기회만 돼봐라' 그래서 계속 **야간 대학 갈 곳이 있는가를 항상 봤어요.** (중략) 그래서 내가 야간 대학을 다녔어요. (C)

C는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그리고 학부 출신의 사원에게 프로젝트를 몰아주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대학을 다니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언급했다. 학창시절 가졌던 대학 진학에 대한 열망이 섬유산업에 종사하면서 다시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섬유산업에 대한 기존 재현은 생산직 노동자를 단순 미숙련 노동으로 재현했을 뿐 아니라 사무직 노동자를 비가시화했다. 이렇게 생략된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들은 '잊혀짐의 정치화'를 거치게 된다. 여성의 노동을 단편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여성 노동자들을 수동적인 존재 즉 도시 공간의 주요 행위자가 아닌 공간의 약자로 전락시킨다.

## 3. 섬유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1990년대 들어 중국이 섬유에 진출하면서 섬유 수출량은 점차 줄어들었다. 이후 국내 섬유산업은 지속적인 인건비 및 생산비의 증가와 생산설비의 과잉 등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인해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양적 확대를 마감하고 기술과 디자인을 접목한 고부가제품 생산체제로 전환했다(이임자, 2013).

> 지금 저희가 90년도 후반, 2000년 초반에 들어오면서 중국이 섬유산업으로 들어오면서 가격 경쟁력이 저가 제품들을 특히 울, 폴리 혼방이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혼방 제품들 울 100% 말고 훈방 제품들은 가겨 경쟁력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기술력보다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워낙 그게 크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철수를 했고요, 저희는 되게 하이퀄리티로만 생산을 해서 지금은 생산 규모가 예전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저희가 1000만 넘게 생산했는데 지금은 한 150만 정도로. (H, 남)

H에 따르면 섬유산업은 사양산업이라 하기 어렵다. 전체 생산량은 줄었지만, 신소재 개발과 고급 제품 위주로 생산하고 있기에 섬유산업은 여전히 건재하다.

> 저희 같은 경우는 사양산업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사양산업이라고 그러냐면 예전에 동일하게 똑같이 저가로 해서 물량으로 갖고 하는 경우는 사양산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건비 싸움으로 가니까. (중략) 그런데 고가로 가는 것들은 아직도 기술력의 격차가 많아요. 그래서 고가의 섬유 파트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양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은 섬유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되게 예전에 막 싸게 대량으로 생산하던 걸 보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중략) 섬유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H, 남)

섬유를 사양산업으로 보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대구라는 공간을 기준에서 섬유는 사양산업이 된 것이고, 두 번째 섬유계열 중 면방직의 생산량이 현저하게 준 것이다. 과거에는 저가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것에 집중했지만 현재 섬유계통은 신소재 개발과 고급 제품 위주의 생산에서 꾸준한 성과가 있다는 점에서 사양산업이라 보기 어렵다.

## 4. 폐쇄적이었던 기숙사?

기숙사는 파놉티콘(Panopticon)의 규율 권력이 작동하는 장소로 해석된다. 규율 권력을 비판한 푸코에 따르면 공장 안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주어진 시간표에 맞춰 기상하고, 이동하고 움직였다. 지금까지 공장 기숙사는 일상이 통제된 공간, 철저한 위계 속에 이루어지는 감시와 규범화된 제도로 점철된 공간으로 해석되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경제성장을 위해 제한된 시간과 여건에서 생산성을 최대로 이끌어내기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기숙사'라는 공간을 계획했다.

경제성장을 위해 시간과 공간을 관리하기 위한 기제로 계획된 기숙사는 푸코의 논리에 의하면 노동자 개인의 사적 시간까지 간섭당하는 공간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외출이 3번으로 제한되거나, 혹은 다음 날 출근에 지장이 없도록 오후 11시에는 강제로 소등을 하기도 했다(정미숙, 1993).

이상의 표현으로 보자면 기숙사는 폐쇄적인 공간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율 속에서 기숙사는 여성 노동자들이 모여 회사의 규율에 저항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조직되고 활동하는 주요 공간이기도 했다(김경민, 2018). 또한, 노동자들은 기숙사를 중심으로 '노동자 문화'를 공유하고 연대의식으로서 '자매애'를 형성하기도 했다(김원, 2005).

> 우리는 만들기도 한 번씩 했었거든? [어떤 만들기요?] 부케 만들기. 꽃꽂이. [지금 문화센터 수업처럼? 되게 좋네요] 어 그때 당시에 내가 장미 접는 것도 그때 배웠다니까. 휴지나 종이 가지고 장미 접는 거 배웠다니까. 거기서 가르쳐줘서 그래서 부케도 만들어서. 또 박 공예 있잖아. 박 바가지 거기다가 그림 그리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거기서 배우고. 그림 그리기랑 뭐 만들기 이런 거 많이 했다. (B)

<그림 6> B 인터뷰 중 휴지로 접은 장미

응답자 B는 기숙사에서의 생활이 억압적이지 않았음을 기숙사 내 문화 활동을 했던 경험을 들어 설명했다. 그는 부케 만들기, 꽃꽂이 등 각종 수업을 통해 문화생활을 즐기기도 했으며, 휴일에는 자유롭게 기숙사 밖으로 외출하기도 했다.

> 내가 그때 다리에 뭐 종기가 났어. 지금도 표시 요래가 있지만. 딱 요 옷 사선 여기에 종기가 나서 걸음을 못 걷겠는 거야. 그래서 치마 입고 절뚝절뚝 걷고 이카니까 거 공장장이 내보고 카더라꼬. '왜 걸음을 그래 걷노?' 이캐가 다리게 뭐가 나서 캤다 설명하니까 병원 다녀오라꼬 돈을 주대 (중략) 전무님이 내 병원비까지 다 대주더라고. (중략) 내가 월급 타가꼬 봉투 넣어서 사무실에 드리러 갔어. 근데 괜찮다 카면서 안 받더라고. (B)

한편, B는 상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수술받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이를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장 기억나는 일로 꼽았다. 산업화 시기 여성 노동자들은 인간적인 대우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B는 노동자로서 존중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없었으며 오히려 감사했던 기억이 많았음을 언급하며 모든 노동자의 일상을 단지 '가엾은' 혹은 '불쌍한' 삶으로 비추어지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공장과 기숙사의 규율은 기계를 멈추지 않기 위해 사람이 아닌 기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개인의 일상을 기계에 맞추어야 했다는 점에서 억압된 공간으로 재현되기도 한다. 또한, 유연하고 섬세한 방식으로 공간을 재구성함으로 노동자를 주어진 공간에 배치해 개인을 외부로부터 차단한 탓에, 기숙사로부터 탈출하고자 했던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기숙사를 억압과 공포의 공간으로만 서술하는 것은 기숙사에서 노동자들이 만들어내었던 '노동자 문화', '자매애'를 비롯한 노동자의 일상을 단순 피해자의 프레임을 더하는 것에 불과하다.

## 제2절 여성 노동자의 다중정체성

### 1. 노동자의 정체성

A는 1968년 15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제직 공장에서 노동을 시작했다. 이후 1980년 첫째 아들, 1984년 둘째 딸을 출산하면서 6년을 쉰 후 1985년에 다시 제직 공장에 출근했다.

> 나는 섬유에서 정말로 결혼하고는 일을 안 하고 싶었는데, 뭐뭐 아저씨 딱 일 올케 안 하고 이래저래 옮기고 제약회사 다니다가 나왔고 카니까 그 뒤에는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목숨 걸고 했다니까. 결혼하고는 처녀적에는 그냥 재미로 벌어가 그랬는데 결혼하고는 이게 기술도 그러다보니까 결혼하고 일 했는 거는 목숨 걸고 했는기다. 목숨 걸고. 애들하고 먹고 살려고. (중략) 남편이 많이 벌어야되는데 하다가 말다가 하니까 그거 믿고 못 있잖아. 그래가 나섰는 게 지금까지라니까. (A)

A는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잦았기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다시 공장으로 출근했다. 그는 2001년 섬유공장 퇴직 후 현재까지 노동을 이어오고 있다. 섬유공장 근무 시절 야간근무가 몸서리치도록 싫었던 탓에, 현재 청소 노동은 섬유와 비교해 보수가 적지만 하루 여덟 시간 정해진 시간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 심심해서 한다기보다는 사람이 안 아프면은 움직여야되고 돈을 벌어놓으면은 좋으니까. 나는 계속 일을 해 왔는 몸이라서. 나는 어릴 때부터 계속 일을 해 버릇했으니까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지 뭐 (A)

A는 15살부터 해온 노동의 습관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침을 언급하며, 아픈 몸이 아니라면 노동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했다. 이처럼 오랜 노동의 습관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경우는 D도 마찬가지였다. D

는 퇴근 후 다른 공장으로 다시 출근해 새벽 2시까지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 매일 새벽 6시에 하루를 시작했던 탓에, 새벽 2시에 퇴근을 한 그에게 주어지는 하루 수면시간은 최대 3시간이었다. 그는 7년 이상 반복된 일상이 습관이 되어 지금도 일찍 일어나는 경우가 잦다.

> 제가 한 2-3시간 잤는 걸 7-8년을 하고 살았으니까 지금도 일찍 자요. 한 9시 자고 나면 어떤 때는 꼭 새벽 3시 돼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아침 8시에 출근해가 6시 30분에 퇴근해서 와가 그랬으니까. 저는 잠이 좀 적은 편이에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D)

그렇다면 여성 노동자들에게 노동은 어떤 의미일까? A에게 노동의 의미는 시기에 따라 세 번 변했다. 결혼 전 그에게 노동은 가족부양의 부담 없이 스스로 돈을 버는 기쁨을 느끼는 수단이었으나, 결혼 후 남편이 퇴사를 하게 되면서 가족부양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즉, 결혼을 기점으로 그에게 노동은 가족부양의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자식이 성장하고 난 뒤 부양의 의무에서 해방된 A에게 노동은 결혼 전 스스로 돈을 벌고 관리했던 시절과 유사하게 자유의지에 따른 경제활동이 되었다.

> 인제는 벌써 그만둬도 되는데 혼자 놀면 뭐하노 (중략) 나는 가마이 이래 생각하면은 할 거 다 했고, 지금은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편안하이 살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결혼 전에는 돈 버는 게 신났다고 하셨잖아요. 혼자 벌어서 쓰면 되고, 근데 결혼 후에는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했고, 지금은 이제 다 뭐 시어른도 가고, 아저씨도 가고 내 혼자 있으니까 (A)

한편, 홀로 두 아이를 키워야 했던 D도 노동의 의미가 시기에 따라 달라졌다. 김해에서 대구로 올라와 학원비를 벌기 위해 일했던 20살 시절 그리고 남편과의 사별 후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 일했던 시기 그리고 현재 아이들이 성장한 후 노동에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시기로 나뉜다.

> 제가 우스운 소리로 처음에는 제가 대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현장에서 일을 하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친구들한테 다 연락을 끊은 거예요. (중략) 현장에서 먼지 구덩이에서 일한다 그러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인연을 다 끊었어요. 친구들이랑. 연락도 안 하고 그랬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너무 고맙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월급도 많고 아직도 불러주는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그랬죠 '나는 다시 태어나도 저승 가도 저승 가면 천사들도 팬티 다 입으니까 거기도 천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웃고 그럴 정도로 지금은 자부심도 있고. (D)

대학 진학을 희망했던 D는 공장 취직 후 친구들과 연락을 끊을 정도로 본인에게 노동은 부끄러운 것이었다. 당시 그는 노동자보다는 학생의 정체성이 강했다. 하지만 남편과의 사별 이후 힘든 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동을 이어왔으며, 지금까지 노동자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그는 노동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 2. 기술자의 정체성

섬유산업에 종사했던 여성 노동자들은 자신을 '노동자'가 아닌 '기술자'로 소개했다. 생산직과 사무직 모두 특정한 기술을 필요로 하기에 여성 노동자들은 대부분 기술자였으며, 맡은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계를 다루는 데 능숙했다.

> 우리 같은 기술자가 가면은 지들이 힘든 기라. 원체 섬유가 경기 좋은 시절이라가지고 요즘은 자동이 많지만, 그때는 수동 이런기라가 일 못하는 사람들도 잘 못 해. 몇 년 해가 손에 익은 사람이어야지 (A)

> 내가 하던 일은 연경 카는 거. 연경 알아요? 그게 섬세한 기술이라서 요래 실을 잘 이어야 하거든? 내가 그걸로 돈 벌었지. 일 처음 시작할 때

는 그냥 실 감는 거. 실만 감다가 일 쪼매 하다보이 요령이 생기대. 그래서 기술 배았지 실만 감아가지고는 돈 못 벌어. (E)

15살에 처음 공장에 취직했던 E가 맡았던 업무는 '실 감기'였다. 하지만 아버지를 도와 아픈 어머니와 세 명의 동생들을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연경'이라는 기술을 배우게 되었다.

한편, 여성 노동자들은 공장으로부터 고용된 위치에 있었지만, 기술자였기에 종종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공장에서는 함부로 노동자를 내쫓을 수 없었다.

공장에 있을 때 그냥 우리는 훌랄랄라 놀러 댕기고 그래가 하기 싫으면 뭐 우리끼리 빵꾸 터자뿌고 훌랄라 놀러 댕겼으니까. 그런기 뭐 갔다 오면 쿠사리 먹고 그런거지 뭐 (웃음) 뭐 기술이다보니까 대우도 해주고 좋았어요. 대우도 해주고 [그럼 혼나진 않으셨어요?] 아이지 우리는 일만 하면 되니까 혼내믄 안되지 우리 (A)

나는 많이는 안 나갔다. 딴 애들 마이 놀러 댕깄지요. 근데 이거 놀러가뿌면 일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럼 죽을 맛이라 그날 일하는 사람들은. 근데 놀러 댕기면 재밌그든 (중략) 부장하고 혼내긴 하지 근데 지들도 다 안다 우리 놀러댕기고 싶어하는 거 (E)

당시 기술자 구인난을 겪고 있던 공장은 여성 노동자들을 고용한 고용주이자 동시에 함부로 내쫓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E는 공장의 관리자들이 여성 노동자들의 근무지 이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도 했음을 언급했다.

더욱이 흥미로운 점은 여성 노동자들은 기술자로 대우를 받았기에 결혼 및 출산과 상관없이 근무 가능했다. 이는 오늘날 출산과 육아휴직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와 대비된다.

아이하고는 아무 상관없지 기술이니까.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는 (중략)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를 필요로 하지 공장은 기술자를 (A)

몸조리하고 조금 더 쉬고 있는데 **이라는 곳에서 이제 또 '도와줬음 좋겠다' 이러길래 아이 키워야 하니까 일할 수 있을까 했는데 자꾸 도와달라네? 내가 10월에 아이를 낳았는데 12월 11일 날 **에 입사를 했다니까 2000년. 2000년 12월 11일 그때. 우리 아이를 2000년 10월 23일 낳았는데 몸조리 3개월도 못하고 그 회사 갔다니까 (C)

결혼한다꼬 나가는 애들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결혼한다고 자르고 애 낳았다고 자르고 그게 없지 지금이랑 달라 (E)

당시 여성 노동자들은 출산 후에도 복귀하는 경우가 잦았다. C는 출산 후 공장의 부탁으로 다시 출근하게 되었다. 또한, 기술자였던 여성 노동자의 위상은 각 공장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 상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들을 데려올 정도로 대단했다. 당시 특별한 승진의 개념이 없었기에 노동자들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공장으로 이직해 근무환경을 스스로 바꾸어갔다.

스카웃 해 가지. 한 다섯 명씩 쫙 빼가고. 입김 좋게 해가 다섯 명씩 쫙 빼갔는데 (중략) 그 시절엔 많이 그랬어. (A)

기술자들 서로 공장에서 빼오려고 경쟁도 (중략) 싸움나고 그랬죠. 그러면 이 공장은 또 다른 공장에 물밑 작업을 해서 그 사람들 데리고 오려고. 그때는 섬유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중략) 사무직도 그랬어요. (C)

생산직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모두 스카웃 대상이었다. 사무직에 종사했던 응답자 C는 더 좋은 조건의 공장에서 여러 번의 스카웃 제의를 받았다. 특히 경기도 소재의 한 공장으로부터 숙식 제공과 높은 연봉을 제안받았지만,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는 것이 두려워 이직을 포기하기도 했다.

### 3. 엄마 혹은 가장의 정체성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자이기 전에 엄마 그리고 가장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 A는 아들의 과외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 그간 기계 중심으로 돌아갔던 여성 노동자의 근무시간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맞춰졌다.

> 학원 데려다준다꼬 1년 간은 주간만 했어. 기술이다보니까 내 그거대로 하면 돼 (A)

> 내가 84년에 애 낳고. 86년에 둘째 낳고 일을 했는데 이게 애 키우면서 돈을 번다 카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시어머니도 애들 봐주고 하고 그랬는데 애들 학교 드가니까 엄마가 해줘야 하는 게 많대? 그래가 일 그만두고… (E)

A는 아들의 학원 시간을 맞추기 위해 주간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았으며, E는 출산 후 육아와 일을 병행하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 우리 아이를 안동이 시댁인데 거기서 키웠어요. 지금은 후회막심이지만. (중략) 정말 형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낮에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더라도 밤에는 꼭 엄마, 아빠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중략) 제일 중요한 시기에 0세에서 3세까지. 유아기 때는 확실하게 그렇게 할 거예요. (C)

한편, C는 육아와 노동 모두를 병행하기 힘들어 아이를 시댁에 맡길 수밖에 없던 상황을 언급하면서 아이를 돌보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그는 다시 돌아간다면 일을 그만두고서 아이와 함께 있을 것을 선택할 것이라 응답했다. 즉, 당장 생계를 위해 노동을 우선순위로 여겼지만, 아이를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C는 노

동자이지만 누구보다 아이에게 미안해하는 엄마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한편, 부모와 가장의 역할 모두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D는 사별 후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다시 섬유공장에 취직했다. 그가 다시 취직한 공장은 같은 섬유계열이지만 결혼 전 근무했던 공정과는 다른 곳이었다. 견을 다루는 공장에서 면방직으로 옮기면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상황이었다.

> 결혼했는데 진짜 딱 5년 5개월 살더니 이제 (남편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가버렸는 거예요. (중략) 근데 면 쪽에는 주간을 근무할 수 있어요. 섬유계통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이제 그래서 견 쪽에서 면 쪽으로 (D)

면방직에 취업 후 D가 맡은 업무는 주로 남성들이 하는 일이었지만 당장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에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하지만 재취업 후 기존 근무자들이 사고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거나 혹은 종종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등 D는 텃세에 한동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다.

> 한 달 정도 출근을 하면서 지갑을 안 가지고 출근을 했어요. 아침에 통근 차를 타고 들어가서 저녁에는 간부들 퇴근하면서 태워주고 만약에 제가 욱하는 성격에 택시를 타고 나와버리면 다음 날 회사 출근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때 지갑, 자존심 다 내려두고 '오늘도 이겨서 함 버텨내보자' 그래가 매일 울면서. 진짜 혼자 많이 울었어요. '이거 버텨내야 된다. 그래야 살아내지' 이러면서 (D)

한 달 이상 계속되는 텃세에 D는 매우 힘들었지만 홀로 두 아이를 책임져야 했기에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다. 그는 근무시간 도중 공장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등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매일 아침 지갑을 두고 출근하면서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차단했다. 한편, D는 출근하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을 때는 아이들을 근처

학원에 늦은 시간까지 맡기거나 혹은 직장상사의 도움을 받아 근무현장에 아이들과 함께 있기도 했다.

한편, D는 1980-90년대 근무하면서 대구의 발전 과정을 끊임없이 지켜봤다. 하지만 그에겐 대구의 발전보다 생계유지가 더 중요했다. 주변인들은 도시 발전 시기 부동산에 투자해서 부자가 되었을 때조차 그는 가장의 역할을 위해 묵묵히 일해야 했다. 그의 관심사는 도시의 발전보다 아이의 성장과 생계였다.

> 자신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3일을 잠을 안 자고 일을 하고, 24시간 일하고 36시간 일하고 잠을 안 자고 그렇게 일을 하고 다닌 거예요. 불러주는 대로 일요일에도 다 다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 24시간 이제 하루에 아침에 나갔다가 그다음 아침에 나오면 24시간 일을 하고 나오잖아요. (중략) 정신으로는 버틸 수가 있겠는데 눈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모래 들어간 것처럼. 화장실 가서 5분 졸다가 나오고 그랬다니까요. (D)

현재 D는 스스로 열심히 살았던 일상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엄마와 가장의 역할을 다 한 것이 자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는 점을 가장 감사한 점으로 꼽았다.

> (아들이) 수사관 됐을 때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해준 것도 없는데 그래도 '아들아 너무 잘 커줘서 고맙다' 이러니까 아들이 그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됐다'** 라고. 그래주니 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부모로서 최고의 찬사를 들었죠. 엄마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았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중략) 딸도 열심히 출산하기 하루 전날까지 일하러 다닌 거예요. 저를 보면서 크다 보니까 당연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D)

그간 '여공'이라 불렸던 여성 노동자들은 가족을 위한 희생적인 역할 속에서 해석되었다. 하지만 D의 사례를 통해 본 여성 노동자는 단순 희생적 인물이 아닌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상의 사례들은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엄마 혹은 가장의 역할까지 해냈음을 보여준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가부장제의 전통 속에서 여성 노동자는 노동뿐 아니라 생산과 재생산 영역까지 책임졌다.

## 4. 딸 혹은 맏이의 정체성

여성 노동자들은 딸 혹은 맏이로서 가족을 뒷바라지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1981년 3월 10일 자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한 여성 노동자는 두 동생의 학비를 책임지기 위해 취직했음을 알 수 있다.

<표 5> 두 동생 뒷바라지 한 여공, 초등학교 졸업 후 입사 (조선일보, 1981.03.10.)

| |
|---|
| 두 동생 뒷바라지 한 여공, 초등학교 졸업 후 입사 |
| 8년근속(勤續)····두동생 학비 뒷바라지 동탑(銅塔)훈장 또순이여공(女工) |
| 【대구(大邱)】 두동생의 학비 뒷바라지를 해온 억척같은 여공이 공장에서 최고의 생산실적을올려 이번 근로자의 날에 동탑산업훈장을 받게돼화제. 이 또순이여공은 장미(掌美)직물공업사 직포과에 근무하고있는 남인숙(南仁淑)양(21·달성군공산면신호동215). |
| 지난7일 훈장수상 소식을들었다는 작은 체구의남(南)양은『그런 훈장을 받게되었다니너무 기쁘다』면서도『동료들보기에 미안하다』고 겸손해했다. |
| 남(南)양이 장미직물에 입사한것은 국민학교를 갖 졸업한73년 5월. |
| 농사를 짓는 아버지 남효삼(南孝三)씨(47)와 어머니 이일동(李一東)씨(42) |

의 2남 2녀중 장녀인남(南)양은 자신은 가정이 어려워 못 배웠지만,동생들 만은배우게 하겠다는 일념으로지난 8년동안 지각한번 한것외는 하루도 빠짐없이 공장에 나왔다.

그동안 남동생 문석(文錫)군(19)을 졸업(고교)시키고 여동생 경숙(敬淑)양(16)을 올해 대구경상여상에 진학시켰다. (이하 생략)

[출처 : 조선일보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1843719810310m1069&set_date=19810310&page_no=6 (1981.03.10.)

여성 노동자들은 가족 살림 밑천의 역할을 감내해야 했던 당시 상황은 B의 응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4형제 중 첫째였던 B는 학생의 신분이었음에도 가족의 생계에 도움이 되고자 일찍이 공장에 취직했다. 그는 일하러 집을 자주 비웠던 부모님 대신 세 명의 동생을 돌보면서 학생과 노동자의 역할 모두 감내했다.

> (일을 하면서) 누구를 챙겨야겠다는 책임감도 많이 생겼는 거 같고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사실은 집이 너무 힘들어서 엄마, 아버지 일하러 댕겼거든 장사하러. 그러면은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엄마가 가고 없으니까 내가 동생 세 명 다 키워가면서 학교 댕기면서 그랬거든? 그니까 그때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갖고 동생들 밥 다 해믹이고 도시락 다 싸주고 빨래 다 해가면서 그래가 중학교 댕겼거든. (B)

B는 고된 노동 탓에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맏이로서 집안에 보탬이 되고자 했다. B는 본인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고 맏이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겼다.

맏이로서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했던 것은 C와 E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어려웠던 집안에 보탬이 되기 위해 맏이의 역할을 스스로 내면화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래서 '나 월급 많이 받아야 한다. 집안에 보탬만 되면 된다' 그래서 거기에 입사를 하게 된 거예요. (중략) 나는 당연히 나는 우리 집을 위해서는 내가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걸로 생각했어요. 뭐 '내가 왜 이거를 해야 하지?' 이런 생각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 (C)

'엄마가 못하는 역할을 맏딸인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엄마가 몸이 조금 안 좋았어. 근데 또 처음에 일을 나갔는데 하다보이 내 동생들은 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E)

특히 아픈 어머니를 대신해 돈을 벌어 동생 세 명 모두 학교를 보냈던 E는 맏이이자 딸이면서 동시에 어머니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그는 B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역할에 대한 의문 혹은 불만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응답했다.

한편, 어릴 적 집안의 보탬이 되기 위해 일을 시작했던 C는 결혼 후 본인이 느꼈던 가난에 대한 서러움을 자식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미래의 사위와 며느리에게도 번듯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결혼을 늦게 하게 되었음을 언급했다.

결혼이라는 걸 왜 그렇게 늦게 했냐면 독신주의는 아니었는데 나는 우리 가정이 좀 잘 살아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사위가 오고, 며느리를 맞이했을 때 그래도 집 한 채는 있는 상태에서 만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어린 마음에 계속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급이 너무 적어서 섬유 쪽으로 이동을 했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C)

C와 D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하지 못했다. 이는 당시 딸은 교육의 기회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회적 통념에 영향을 받았다. 반면, 아들의 경우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도 대학까지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아버지는 '니를 대학 보낼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이렇게 친척한테도 애기

했었어요. (C)

시골 살림에 아버지 조건이 그러셨던 거예요. 남자는 무조건 대학을 보내야 한다. 근데 딸 둘 등록금이. 다섯 명 다 (교육을) 시킨다는 건 촌에서 버겁잖아요. 하나도 버거운데 (중략) 아버지가 이제 장래를 보신 거죠. 아들은 무조건 대학을 시킨다. 느그들은 한 자리 해묵을 기다 이런 식 (D)

남아선호사상이 얼마나 심한데 딸내미들은 살림 밑천이라고 전부 다 보내고 아들내미는 뭣같이 공부 못해도 다 학교 보낼라카지 그래 (B)

아들은 집안을 일으키는 '장손'으로 여겨졌기에 학업 성취도와 상관없이 집안 형편과 상관없이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B는 딸은 맏이가 아니어도 가족을 위해 일을 하는 '경제적 맏이'의 역할을 언급하며 교육에 대한 차별에 불만을 제기했다.

## 5. 학생의 정체성

여성 노동자 중 산업체 고등학교에 진학해 섬유공장에 근무했던 B는 스스로를 노동자 혹은 기술자가 아닌 '학생'으로 소개했다. 당시 그가 맡았던 업무는 단순 실을 감는 일이었다.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나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냥 실 감는 거. 기계로 실 감는 거 하고, 베 짜고 (중략) 나는 기술이 없다. 기술자는 아니었다. 와카노 카면은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B)

학생 신분이었던 B는 노동이 힘들었지만, 생계와 함께 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주거의 문제가 모두 걸려있었기에 참고 버틸 수밖에 없었다. B는 주중에는 노동과 학업을 병행하고, 휴일에서 고향인 경북 고령으로 돌아가 세 명의 동생들을 돌보면서 부모님을 도왔다.

참고 견디는 거. 고런 거는 그때 당시에 그만두고 뛰쳐나오고 싶어도 학교가 걸려있으니까 무조건 삼 년은 다녀야된다 카는 그거 때문에 암만 캐도 조금 내 자신한테서는 인내심이 안 그랬겠나 싶다. [그럼 졸업과 돈 중에 졸업이 더 중요했어요?] 응 그때 당시에 나는 학교. 일단은 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갔으니까. 공부를 못하지만, 일단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B)

본인을 노동자이기 전에 학생이라고 표현하는 B에게 노동은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기보다 학업의 수단에 불과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했지만 가난했기에 기회가 없었던 그에게 산업체 고등학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처럼 졸업을 목표로 두었던 여성 노동자들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공장으로 향했다.

## 6. 경제주체로의 성장

노동자가 되어 경제주체로 성장했던 여성 노동자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여성 노동자는 직접 돈을 벌어 집을 마련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산업체 고등학교로 진학했던 B와 15살부터 일을 했던 E는 모든 돈으로 집을 마련했다.

한 달에 내가 인자 적금을 넣었거든. 적금을 넣어가지고 일 년 됐는 거 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큰아버지 빌려줘가지고 큰아버지가 오래 가져갔다가 이자도 붙어서 암튼 어찌저찌해갖고 다 모다니까 300만 원 됐거든? 인자 거기서 동생이 벌었는 거 하고 엄마 벌었는 거 하고 합해서. 내가 300만 원 보태고 그래가고 고령에 엄마 집을 샀다. (B)

이제 동생도 같이 일을 하게 돼서 그 돈 다 합치고 그래가 큰 집으로 이사했었지요. (E)

C는 학창시절 집 없는 서러움이 경제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어 취업 후 아버지 이름으로 집을 마련했다. 수입을 얻게 되자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가졌고,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특히 그는 취업 후 가장 뿌듯했던 순간을 부모님과 본인 이름이 아파트를 마련한 것으로 꼽았다.

> [가장 뿌듯했던 순간을 꼽자면요?] 우리 엄마, 아버지 이름으로 집을 사준 것 그리고 제 이름으로 아파트 하나 분양받은 것. 그것은 내 섬유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나의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마련된 거라서. (C)

직접 돈을 벌어 주택을 마련하게 되자 C는 미래에 대한 투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결혼과 이후의 생활, 그리고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투자를 시작했다.

둘째, 여성 노동자들은 공장에서의 노동을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로 생각했다. 가족부양의 의무가 있었던 노동자 대부분은 '주택 마련'이라는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한 후 결혼자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 뭐 그냥 돈 모다가 쓰고 뭐 좀 나뒀다가 시집가면 된다 그 생각만 했지. (A)

> 일단 내가 돈을 벌어서 그래갖고 내가 엄마, 아버지가 사는 게 힘이 드니까. 못 사니까 보따리 장사하고 하니까. 일단 내가 벌어서 내가 시집가야겠다 카는 거. 일단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게 많았지. (B)

> 집에 돈이 조금 생기니까 이제 시집 갈라꼬 돈 모았지요. 원래카면은 저기 시내 나가가 옷도 맞춰 입고 그러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시집갈라카면 돈을 모다야되니까. 그땐 다 그랬다. (E)

전통적 가족공동체 사고에 익숙했던 여성 노동자들에게 결혼은 살

림 밑천으로 가족에게 보탬이 된 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목표가 되었다. 당시 여성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 공장을 나가는 것이 곧 성공적인 삶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결혼 자금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 노동자들은 일차적 목표인 주택 마련을 달성한 후, 결혼자금을 마련했다.

## 제3절 소결

기존 여성 노동과 노동공간은 단편적이고 파편적으로 재현되었다. 첫째, 섬유산업은 다양한 공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방직 혹은 모직만을 제한적으로 재현했다. 특히 같은 계열일지라도 공정별로 서로 다른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이 간과되었다.

둘째, 여성 노동의 다양성을 무시했음을 비판할 수 있다. 먼저, 섬유직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생산직뿐만 아니라 사무직에도 종사했다. 하지만 기존 재현은 생산직 종사자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진 탓에 섬유산업의 사무직은 드러나지 못했다.

셋째, 섬유산업은 그 자체로 사양산업이 된 것이 아닌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다. 1970년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하면서 호황을 맞이했던 섬유산업은 중국이 섬유산업에 진출함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하여 사양산업으로 불려왔다. 하지만 현재 국내 섬유산업은 지속적인 신소재 개발 및 고부가제품 생산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이는 섬유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넷째, 섬유공장은 생산의 효율성을 위해 기숙사를 마련하여 노동자들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공장·학교·병원의 기숙사는 줄곧 푸코의 규율 권력을 통해 해석되었지만, 기존 푸코의 해석으로만 '기숙사'라는 공간을 해석하는 것은 노동자 개별 주체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배제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기숙사는 '노동자 문화', '자매애'를 기르는 공간, 자율 활동을 통해 주체성을 만들어가는 공간이기도 했다.

다섯째, 기존 여성의 노동과 관련한 단편적 재현은 여성 노동자의 다중정체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여성들은 노동자이자 각 공정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을 지닌 기술자였다. 또한, 가족의 보탬이 되기 위해 살림 밑천의 역할을 해야 했던 여성 노동자들은 가족 단위를 넘어 국가발전 담론 아래 '산업역군'으로 불리며 성실히 딸의 역할에 임했다. 이후 결혼을 하고 자식이 생긴 이후에도 노동을 이어갔던 여성 노동자들은 공적 공간에서의 노동과 사적 공간에서의 재생산 활동 모두를 담당했다.

한편,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산업체 고등학교로의 진학이 불가피했던 여성도 있었다. 산업체 고등학교에 진학했던 여성은 항상 자신을 노동자가 아닌 '학생'으로 소개하며, 노동이 목적 자체가 아닌 수단인 경우가 존재했다. 마지막으로 여성 노동자들은 모두 경제주체로 성장했다.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모두 일차 목표인 주거공간을 마련했고, 이후 결혼을 위해 스스로 결혼자금을 마련했다.

기존 '섬유 도시' 재현이 은폐 혹은 왜곡했던 여성과 노동, 그리고 공간을 여성의 시각에서 다시 해석한다면 그간 도시를 바라보는 남성중심적 관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금까지 도시는 '기억의 정치'에 따라 공간을 선택적으로 재현했다. 기존 섬유산업은 국가주의라는 거대한 가부장체제 아래 재현되었기에, 남성 중심적인 시각으로 재현되었다. 반대로 선택받지 못한 기억들은 '잊혀짐의 정치화'를 거치게 되면서 도시 공간에서 여전히 자리하지 못한 채 수동적인 존재로 남게 되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선택적 재현의 대안으로 'herstory', 즉 공간의 주인공으로 여성을 호명할 것을 제안한다.

# 제6장 공간의 주체로서 '여성 노동자'

## 제1절 지역이동 및 노동의 시작

### 1. 대구로의 이동

대구에서 섬유산업에 종사한 여성들은 모두 대구 출신이 아니었다. 전국 각지에서 대구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터뷰를 진행했던 여성 노동자 다섯 명은 모두 타지에서 대구로 이동했다. 대구로 오게 된 계기는 부모님과 함께 지역이동을 한 경우(A,C,E), 산업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이주(B), 그리고 대학입시 실패 후 고향을 떠난 경우(D)다.

> 대구는 열네 살 때 나왔으니까. 그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랑 둘이 있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구 나왔죠. (A, 경남 밀양시 출신)

> 고향은 경북 군위. 군위군 지금 비행장 때문에 난리 난 곳 거기고 대구는 돌이 되기 전에, 그때 대구로 이사를 왔지 침산동이 저희 친정이 처음 살았던 곳이다. 거기 북부정류장 근처에서 와가지고 처음에 터를 잡았다고 하더라고 근데 거기에 대한 기억은 없지 (C, 경북 군위군 출신)

> 그때 당시에는 산업체라고 카는 게 많이 있었거든. 살기 힘드니까 학교 보내기도 힘드니까 인자 섬유회사에서 인자 우리 학교로 와가지고 고령에. 중학교에 와가지고 산업체 가실 분. 일해가면서 돈 벌어가면서 공부하실 분 이렇게 지원해라 해서 인자 지원했거든? (B, 경북 고령군 출신)

> 경남 김해 장유. 대구는 85년도에 왔어요. (중략) 올라온 계기가 사실 집

에서 쫓겨난 거지. 산골에 살고 있었는데 대학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공부를 시켜달라고 하니까 솔직히 시골에서는 부모님이 공부시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오빠도 대학생이고 밑에 동생도 셋 있는데 아버지가 그때 조건을 달았어요. 대학을 보내주되 교대를 가면 보내주겠다. 근데 대구교대를 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창원대 이런 곳에서는 반(半)장학생으로 오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건 절대 안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중략) 대구 봉덕동에 육촌 할아버지가 계셔서 그게 연고가 돼서 아침에 첫차 버스 타고 여기 올라온 게 대구예요. (D, 경남 김해시 출신)

중학생 나이 때 대구로 왔어요. 그래가 그다음 해에 공장에 처음 갔지. 14살에 엄마 아버지랑 다 같이 대구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자꾸 집에 돈이 없다카니까 나도 이제 가야겠다 싶어서 학교도 안 가고 나갔다. 내가 15살에. (E, 경북 영천시 출신)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대구로 이동한 후 섬유산업에 종사하게 된 B를 제외하고 네 명의 응답자는 지역이동의 목적이 노동이 아니었다. 또한, 인터뷰를 진행한 여성 노동자 모두 대구 출신이 아니었으며, 당시 섬유산업에 종사했던 여성 노동자들 역시 전국 각지에서 대구로 이동한 경우가 많았다.

## 2. 섬유산업 종사 계기

섬유산업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설명은 그동안 '희생양 담론' 아래 이루어졌다. 국가는 여성 노동자를 '민족을 구한 영웅'으로 담론화했으며, 여성 노동자들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이자 국가의 가부장인 박정희와 함께 나라를 구했다는 패러다임으로 해석되었다. 미시적으로는 개별 가족의 생계와 가부장 및 미래 가부장인 남성 형제들의 교육을 위해 본인의 욕망을 포기해야 했던 인물로 해석됐다. 하지만 '희생양 담론'은 여성 노동자들이 가진 공장과 도시에 대한 적극적인 동경과

노동자 개인이 가진 정체성과 성격을 은폐했다(김원, 2005)는 지적을 받았다. 본 연구 역시 '희생양 담론'을 뛰어넘어 여성 노동자들을 오히려 책임감을 가진 주체성을 지닌 인물로 해석하고자 한다. 인터뷰를 진행한 다섯 명의 여성 노동자들은 가족을 부양하거나 혹은 생계유지의 부담감을 안고 있었다.

> 대구에 나오니까. 오빠 집에 얹히가 사니까 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장에 많이 갔지. 그래가 먹고 살라고 간기지 (중략) 일하러는 15살 때부터 갔다. 그때부터 섬유에 갔다. 그때부터 섬유에 가가지고 인자 저 밑에 일했지. (A, 15살에 근무 시작)

다섯 명의 여성 응답자 중 유일하게 가족부양의 부담이 없었던 A는 본인의 자립과 독립을 위한 수단으로 노동을 택했다. 15살에 처음 공장에서 근무를 시작했던 그는 실 감는 업무부터 시작해 베 짜는 기술을 익혔다.

> 처음에 대구에 와가지고는 집이 진짜 돈이 없었어. 밑에 동생이 셋이나 있는데 엄마가 몸이 좀 아파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 학교도 안 가고 처음에 나간 게 15살이라. 솔직히 집에 돈이 없어가 학교는 못 갔고 근데 여기 다 공장이었거든 그때는요. 그래가 내가 나가기 시작했지 '아 엄마도 일 못 하는데 내라도 나가야겠다' 싶어서. **첫째니까**. (E, 15살에 근무 시작)

E는 아픈 어머니를 대신 일을 하기 위해 15살에 처음 섬유공장에 취직했다. 집안의 첫째였던 그는 여섯 명의 식구를 아버지 혼자 감당하기에는 힘들다는 생각에 스스로 공장에 취직했다.

>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니까 85년 1월부터. 아 섬유를 시작한 거는 86년 7월이고. 내가 85년 2월에 졸업을 했는데 85년 1월에 법무사 사무실에 1년 6개월 근무를 했어요. 하다가 페이가 너무 작은기라. 그때는

> 섬유가 너무 호황기라서 **'나는 **여상을 나왔으니까 집안의 보탬이 되어야 한다.' 장녀였거든요?** 경제적으로 이 돈을 받고는 내가 여상을 나온 보람이 없다 해서. (C, 21살에 근무 시작)

C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가 받은 월급은 4만 원이었다. 하지만 금융업에 취직한 친구들의 월급이 12-13만 원인 것을 알고 난 후,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융업에 종사하길 원했다. 그는 고등학교 성적이 우수했지만, 당시 금융업계 지원조건인 '용모단정'에 미치지 못해 취업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 용모단정이 뭐냐하면 키 얼마 이상. (중략) '**여상을 졸업했다.' 그러면 기본은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 되면 뭐해요? 면접에서 안 되는데. 마을금고에 시험도 치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탈락. (C)

C가 재학했던 고등학교의 졸업장은 서류 전형에서 합격이 보장될 만큼 우수한 학교였다. 성적까지 우수했던 그는 누구보다 쉽게 합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본인의 작은 키와 왜소한 체형이 '용모단정' 조건에 미치지 못해 탈락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업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미치지 못한 그는 몇 번의 탈락을 거친 후 섬유 회사로 이직했다. 한편, 장미경(2004)은 1960-70년대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공장에 근무했던 여성 노동자 인터뷰를 통해 동일방직은 '키가 158cm 이상, 몸무게는 얼마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이 있었음을 밝혔다. 즉, 당시 여성 노동자들은 능력뿐 아니라 외모까지도 기업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어야 했다.

응답자 D는 대학입시 실해 푸 대구로 오게 되면서 옆집 언니를 따라 섬유공장에 취직했다. 취직 당시 목적은 대학입시를 위한 학원비 마련이었다. 그는 섬유공장에서 6개월 근무 후 고향에 내려갔으나 그동안 모아둔 돈을 오빠의 대학 등록금으로 보태게 되면서 다시 섬유공

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 할아버지 옆집에 사는 언니가 지금 면이 아니고 폴리 쪽에서 섬유계통에 일을 하고 있는 거에요. 85년도에 올라오니까. 근데 할아버지도 잘 모르시니까 '옆에 그 가은(가명)이라고 있는데 참 월급 많이 받는갑더라 거 함 가봐라' 이러는 거에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폴리 쪽에는 약품이 풀을 저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베를 짜고 풀을 먹이는 공정이에요. (중략) **이제 거기서 먹고 재워 준다는 거 하나 믿고는 6개월만 일해서 학원비 벌어서 내려가겠다**고 그래서 올라왔는 거에요. 그 언니 따라서 6개월간 돈을 모아서 8월쯤에 내려오니까 공부를 하겠다고 내려갔는데 오빠가 맨날 정액 장학금을 받다가 C 장학생이 된 거에요. 그니까 등록금을 일부 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걱정하고 계시길래 그러면 내가 돈 모은 거 오빠 주고 6개월간 더 돈을 모으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다시 올라와서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안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섬유 쪽에 일을 하게 된 거예요.(D, 20살에 근무 시작)

기숙사를 통한 숙식 제공은 D가 섬유공장에 근무하게 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였다. 당시 노동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이동한 탓에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공장에 취업했다. 즉, 숙식 제공은 노동자들이 공장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

> 그때가 인자 방학하기 전에, 방학할 때 졸업은 하기 전이고 겨울방학 딱 시작하면서. 차가 와서 단체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갔다가 (중략) 학생들 마이 갔다 그때 한 6반까지 있었나? 50명은 갔을걸? 그때 한 반에 40명씩 넘게 있었으니까. 그때는 산업체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거든. 형편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니까는. 집에서 돈 없어서 안 보내주니까는 가서 인자 밤에는 학교 다니고 낮에 일하고. (B, 16살에 노동 시작)

> 생산직 사원을 구하기 위해서 사무실 직원들 중 왜 촌이 고향인 사람들 있잖아. 영덕, 청송, 이런 사람들. 직원들 해가지고 학교에 선생님 찾아

가라 하고 교장 선생님 찾아가라 해서 '우리 회사는 무슨 조건이 있다, 우리 회사에 오면 **여상 야간을 보내준다' 이렇게 홍보를 시켰어요. 이래서 13살 직원들 많이 왔었어요. (C)

산업체 고등학교로 진학한 B는 어려운 사정 형편으로 교육과 노동이 모두 가능한 산업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이 많았다고 응답했다. 규모가 큰 섬유공장은 생산직과 사무직 직원 모두를 동원해 고향과 모교를 방문하여 공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B가 거주하던 경북 고령에서는 한 학교에서 50여 명이 동원되었으며, 공장은 산업체 고등학교를 통해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했다.

내 동생 있을 때는 어땠는고 하면은 **방직에서 학교를 하나 만들었다니까 안에다가. 말하자면 한 반을 만들어서 책상 두고 거기서 공부를 가르쳤어.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는 아니지 그러니까. 그자? 그래 하다가 학교가 흐지부지 하이 뭐 어떻게 그렇게 됐어. 그래갖고 그만뒀다 아이가. 그래갖고는 고마 학교도 그만두면서 다시 시골로 갔다. (B)

여자분들은 저희가 부설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부설 고등학교요. 예전에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부설 중학교도 (중략) 일부 시골에 계신 분들은 중학교 졸업하시고 입사하면서 여기 다니시고 근무를 하고, 뭐 그렇게 병행하신 분도 있거든요. (G, 남, ◇◇물산 28년 근무)

산업체 고등학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먼저 B가 진학했던 학교의 형태로, 일반 여자상업고등학교 야간부로 운영되는 경우다. 주간부 학생이 하교한 후 남은 공간을 오후에 퇴근한 야간부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다. 또 다른 형태는 공장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다. '산업체 부설학교'라 불리는 이 형태는 학교법인 없이 공장의 자율로 운영된다. 대구에서는 제일모직이 운영했던 '성일여자실업고등학교', 갑을방적이 운영했던 '이현여자고등학교'와 '자산여자상업고등학교' 그리고 한일합섬이 운영했던 '한일여자실업고등학교'가 있다.

하지만 산업체 부설학교는 공장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시설과 교육과정 모두 일반 학교에 비해 열악했다. 산업체 고등학교에 진학했던 B와 달리 산업체 부설학교로 진학했던 B의 여동생은 경영악화로 학교가 폐교되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되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 따라서 산업체 부설학교는 공장이 부도나거나 혹은 공장이 이전되어 폐교되는 경우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의 기회와 삶의 터전까지 잃게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위험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여성 노동자들은 산업체 부설학교로의 진학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한편, 당시 여성 노동자들은 가족공동체적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산업역군'이자 가족 단위에서 '살림 밑천'의 역할을 맡았던 여성 노동자들은 본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했다. 하지만 인터뷰 결과 여성 노동자들에게 노동은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 목적이지는 않았다. A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 B는 교육을 위해 산업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섬유공장에 취직했다. 한편, C와 D는 모두 대학 진학을 희망했으나 전통적 가족공동체적 사고와 성별 이데올로기에 의해 집안의 보탬이 되었다. 특히 학원비를 벌기 위해 공장에 취직한 D에게 노동은 교육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음을 보여준다.

## 제2절 근무환경

### 1. 공장 시설

섬유공장의 시설은 공장 규모에 따라 편차가 있었다. 영세기업은 노동자들이 작업복을 갈아입을 공간마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탈의장도 없고 씻는 데도 잘 없고. 옷 갈아입고 씻는 데도 잘 없고 (중략) 비품도 없고 화장지 이런 것도 안 주고 우리가 다 갖고 가서 비누도 개인적으로 다 갖다 써야되고요. 손 하나 씻어도 우리가 다 갖고 와서 써야되고. (D)

반면 공장의 규모가 큰 경우 공장과 기숙사, 그리고 공장 내 조경까지 잘 갖추어져 있었다. 1961년 1월 29일 자 조선일보 기사와 당시 산업체 고등학교 재학 시절 규모가 큰 공장에서 근무했던 B의 응답에 따르면 규모가 큰 공장은 각종을 포함해 조경까지 잘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노동실태 (조선일보, 1961.01.29.에서 일부 발췌)

노동실태(勞動實態)

대구(大邱)의오개섬유공장(五個纖維工場)을중심(中心)으로

서울대법대조사보고(大法大調査報告)

…어느공장(工場)을가든지 온실(溫室)및 화단(花壇)이 지극(至極)히 화려(華麗)하게 설치(設置)되어있었는데 이는기업가(企業家)의 허영(虛榮)과 헛된 자과심(自誇心)을 표현(表現)하기 위한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하생략)

[출처 : 조선일보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121361961012 9m1031&set_date=19610129&page_no=3 (1961.01.29.)

되게 좋았거든 정원이. 조경도 예쁘게 해놨다. 그래갖고는 거기서 친구들하고 막 사진도 찍고 또 집에 사진도 있지만은, 사진 찍고 잔디에서 뒹굴면서 사진 찍고 친구들하고. (B)

<그림 7> 연못이 있었던 공장

(출처: 응답자 B제공)

<그림 8> 기숙사 앞 잔디밭

(출처: 응답자 B제공)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은 시설과 조경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 현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위치한 삼성창조캠퍼스로 재편된 과거 제일모직 공장은 당시 공장 내 연못이 있는 등 공장을 정원으로 꾸미고자 했음을 삼성 창업자 이병철의 자서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공장부지 전체를 잘 다듬어진 정원으로 생각하는, 말하자면 정원공장이라고 할 만한 것으로 꾸미고 싶었다”고 언급하며 공장의 시설과 조경을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이병철, 2014).

## 2. 월급 및 복지

여성 노동자의 월급은 직종과 학력에 따라 구분되었다. 김원(2005)에 따르면 1975년 생산직 여성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사무관리직의 절

반, 전문기술직과 행정관리직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었으며 여성 노동자의 월급은 대졸 여성의 3분의 1, 대졸 남성의 6분의 1에 그쳤다. 1980년도 최종학력이 중졸 이하인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 인터뷰 결과 여성 노동자들의 월급은 최종학력과 부서, 그리고 직종과 경력에 따라 월급에 격차가 나타났다.

<표 7> 응답자별 월급

| 응답자 | 년도 | 월급(원) | 부서 | 학력 |
|---|---|---|---|---|
| A | 1969 | 3천 | 섬유 생산직(면) | 중학교 졸업 |
| | 1976 | 1만8천 | | |
| B | 1981 | 6만 | 섬유 생산직(면) | 산업체 고등학교 학생 |
| C | 1985 | 4만 | 법무사 사무실 수습직 | 상업고등학교 졸업 |
| | 1986 | 13만 | 섬유 사무직(섬유 설계) | |
| D | 1985 | 7만6천 | 섬유 생산직(견) | 일반고등학교 졸업 |
| | 1996 | 80만 | 섬유 생산직(면) | |
| E | 1977 | 2만 이하 | 섬유생산직(면) | 중학교 졸업 |
| | 1980 | 2만 | | |

C에 따르면 대졸과 고졸의 월급 차이는 30%가량 차이가 난 반면, 생산직과 사무직의 비교에서는 사무직의 월급이 1.5배 많았다. 근무시간은 사무직이 길었지만, 업무 강도는 생산직이 힘들었다.

> [생산직이랑 사무직 월급 차이는 얼마 정도였나요?] 1.5배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대졸 사원과 고졸 사원의 월급 차이도 한 30%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직 사람들은 같은 조건이었다면 월급이 작았어. [그럼 업무 강도는 어땠나요?] 현장(생산직)이 훨씬 어려웠죠. 시간도 내가 다녔던 회사는 그때 당시로는 3교대를 하는 회사였어요. 사무실은 캤잖아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오히려 근무시간은 사무실(사무직)이 훨씬 빡셌지. (C)

한편, A와 E의 응답에서 1970년대 중반 생산직 월급이 2만 원이 채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A는 처음 일을 시작한 1969년 그의 첫 월급은 겨우 3천 원이었으며, E는 1974년 받은 첫 월급은 만 원 이하였다.

> 하도 오래된 기가 내가 우째 기억을 다 하겠노. 아마 몇천 원. 내가 18살에 그때도 2만 원 못 받았으니까. 처음 2만 원 받은 게 결혼하기 전에? 내가 82년에 (결혼)했으니까. (E)

한편, B에 따르면 일반 노동자와 학생의 월급 차이는 2배였다. 1981년 산업체 고등학교 학생들이 받는 월급은 약 6만 원이었다. 산업체 고등학교 학생은 등교 시간이 정해져 있어 잔업 등의 추가 근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에 비해 월급이 적었다.

> 임금은 그때 당시에는 한 달 월급 받으면은 6만 원 받았는가? 그때 당시로는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많은 돈은 아니고 그때 시간당 얼마 받았겠노 (중략) 우리는 거 회사 자체에서 학교를 보내준다꼬 월급을 적게 줬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잔업이 없었으니까 학생이라서. 학교 가야되니까. 일하다가도 시간 되면은 학교 가라고 하니까 (B, 산업체 고등학교 재학)

D가 속해 있는 사이징 공정에서는 직급이 '양성-보조-기장' 순으로 이루어진다. 기술을 배우는 단계인 양성, 기장을 보조해주는 보조, 실제로 기계를 움직이는 기장이 될수록 월급도 올라갔다. 흥미로운 점은 남성이 많이 근무하는 사이징 공정에 근무했던 D는 기술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남성 노동자보다 월급을 많이 받았다. 그는 현재 근무 중인 공정에 입사했을 때 80만 원을 받아 이후 100만 원을 주는 공장으로 이직했다. 생산직에는 별도의 승진 개념이 없기에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월급이 더 많은 공장으로의 이직이 승진과 같았다. 섬유공장은 언제나 기술이 있는 노동자를 필요로 했기에, 다른 공장에 근무

하는 기술자들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며 이직할 것을 권유하는 일이 잦았다.

> 85년도 그때 7만 6천 원 이렇게 받다가, 양성에서 보조로 올라가요. (직급이) 양성-보조-기장 이렇거든요. 처음 인제 기술을 배우는 단계를 양성이라 그러고, 어느 정도 할 줄 알면 보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보조해주는 거냐면 기장을 보조하는 거예요. 완전 기술자. 기장은 기계 앞에 딱 서 있고, 보조가 실 떨어지면 실을 갖고 오는 거예요. 실을 가져오면 앞에서 받아가 연결해주고 (중략) 보조는 한 십몇만 원 받다가, 기장이 되면 월급이 많은 거예요. 애기 아빠가 그때 결혼할 때 23만 원 받더라구요. 그때 제가 26만 원을 받았어요. 남자보다 더 많이 받았죠. 그렇게 해서 5년 5개월 살림 산다고 그만뒀다가 그래 (다시 일하러) 갔을 때는 그때 월급 80만 원이었는가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D)

A에 따르면 섬유업계에 노동조합이 형성되기 전,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여성 노동자들이 다른 공장으로 이직하려는 경우에는 월급을 올려주거나 혹은 더 나은 근무조건을 제시했다.

> 조합도 없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말도 못 했죠. 그냥 주는 대로. 잘 올려주지도 않아. 주는 대로 받았지. 돈 올려달라는 소리 그런 것도 못해요. 사무실에 우두머리 주인이라는 사람들이랑 조금씩 올려준다 그랬지 그기 섬유 빗 짜는 기술이라서 알아서 지들이 올려주지. 요즘처럼 올려달라 이런 소리 절대 못 해. (중략) 기숙사에서 우짜다가 우리보고 '딴데 갈래? 오라칸다' 이카면은 가기도 전에 소문이 퍼지뿌면은 반장들이 돌아다니면서 말리지. '있어봐라 내년에 더 잘해준다' 카면서 (A)

하지만 C에 따르면 섬유업계에 노동조합이 형성된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요구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개인적으로 비공식적 차원에서 결근 형식의 투쟁을 벌여 낮은 임금에 대한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원래는 그냥 뭐 노동조합이 없었기 때문에 내한테 제대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며칠씩 결근을 한다거나 소위 말하는 투쟁 아닌 투쟁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월급 쪼매 더 주고 이랬었어요. (중략) 시위나 투쟁 그런 것도 있었지 노동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을 했어야 됐어요. 섬유노조는 근데 그렇게 강성이 아니에요. (C)

그렇다면 복지는 어땠을까? 여성 노동자들은 긴 근무시간과 높은 근무 강도에 맞지 않게 식사는 열악했다. 식사에 대한 불만은 A와 B의 응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밥 뭐 먹기 싫지 (한숨) 아이고 그거 머 밥하고 국 한 개 하고 반찬, 국 하고 반찬 두 개 하고 밥하고 딱 그래 주는데 뭐 그냥 뭐 먹는 거지 (그럼 밖에서 사 먹거나 그랬나요?) 매점. 매점이 있었지 큰 공장 같은 데는. 경산 **섬유 거는 있고, 밖에는 식당도 있고 밥 먹기 싫으면 나가서 먹고 그랬지 주간하고 저녁에 나가서. (A)

밥은 그냥 별로. 그래도 **에서는 잘 나왔는 거다. 그전에는 **섬유 맨 첨에 갔는 데는 거는 진짜 못 나왔고. (B)

한편, 영세기업의 노동자들은 연차와 휴가도 본인의 의지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휴일도 공장의 일정에 맞춰야 했으며, 당일 출근 직전 출근을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휴가는 이틀씩, 연차도 회사는 있는데도 연차를 잘 안 해주는 거예요. 바쁘기도 바쁘고 한 사람 빠져버리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니까. 복지는 전부 다 열악해요. (중략) 연차 이런 것도 회사에서 있어도 일이 없으면 회사에서 당일 연락이 와요. '오늘 하루 쉬세요' 이렇게. 근데 그걸 연차에서 빼버려요. 우리가 필요해서 쓰는 게 아니고 회사가 필요할 때 쉬게 해서. 근데 그걸 아무도 말을 못 해요. 회사 원리대로 그렇게.

그래도 또 저희들이 좀 불만인 게 하루 안 나오는 거, 일이 없어서 안 시키는 거 이해해요. 좋은데 그것도 한 12시나 1시에 미리 연락해주면 좋잖아요. 출근 준비 다 했는데 딱 연락이 오는 거예요. (D)

회사의 복지는 규모가 작은 영세공장일수록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또한, 노동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일이 잦았으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특히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노동자들은 공장의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이들은 오히려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현실에 감사할 뿐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저 '작은 불편함'으로 여기고 있었다.

## 3. 열악했던 근무환경

섬유산업은 1970년대 초 최대의 실적을 이룰 만큼 호황을 맞았으나 실상 섬유공장의 근무환경은 열악했다. B는 산업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섬유에 취직하지 않고 안경공장에 취직한 이유로 열악했던 근무환경을 꼽았다.

첫째는 (섬유는) 학교 때문에 갔던 거였고. 너무 너무 너무 더워서 시끄럽고 섬유는. 여름 되면 45도씩 이래 올라간다. 그것도 그냥 45도 올라가면 괜찮은데 그거는 실이기 때문에 물을 자꾸 뿌리야 되거든 그러면 습도가, 습한 데다가 더워봐라 (중략) 아니 습하고 더우니까는 미치지. 선풍기를 틀 수 있나 그러니까는 일단 문만 열어놓는 거 환기시키는 거 그거 밖에 없잖아. 그래서 나는 너무 더워서 근데 딴 데 가면은 선풍기 틀고 쾌적하니까. 섬유는 그게 파이다. 너무 더워서. 온도를 맞춰야 하니까. (B)

B가 근무했던 면방직 공장은 높은 온도와 습도로 숨쉬기 힘든 환경이었다. 환기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있지 않은 데다 선풍기조차 틀 수 없었던 열악한 환경에 근무 중 실신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섬유공장은 각종 사고에 취약했다. 기계에 끼여 사망하거나 실을 감다 베가 날아가는 경우 등 항상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다.

<표 8> 돌아가는 기계에 소녀공 참사 (조선일보, 1929.12.24.)

돌어가는기계(器械)에 소여공참사(少女工慘死)

뼈가하나도안남도록 무착하게갈려서죽엇다 대구편창제사장(大邱片倉製絲場)의참극(慘劇)

하로에 불과이십전박게 못되는돈을 엇고저아츰부터 저녁까지허덕거리며 애를쓰다가 무참히도긔계에말리어 죽은가련한소녀작공이잇스니그는성주군성주면성산동(성주군성주면성산리(星州郡星州面星山里))에원적을둔석금련(석금련(石今蓮))(일사(一四))이라는 소녀로 지난몸에대구편창제사회사(대구편창제사회사(大邱片倉製絲會社))에들어가서 만치아니한 돈을바다가지고 고향의 부모를봉양하든가운데 지난십칠일은 마츰공휴일이라여러직공과가티쉬이든중 목이말러서 물을먹으려고자긔동모인 황순이(황순이(黃順伊))(일륙(一六))와가티 자견장(자견장(煮繭場))으로갓다가 돌아가는 긔계박휘에옷자락이끌려들어가 채것잡을새 업시몸까지 끌리어가서 오후네시십분 경에 무참하 죽엇 는데이광경을 목 도한 그동무 황순이는겁결에 급히박그로 뛰어나가남자직공에게 곳말하자 그제야긔계를쉬이고보니 뼈가하나도업시다부서지고 현장에는 류혈이림리한 처참한 광경을일우엇섯다더라(대구)

[출처 : 조선일보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321919291224e10714&set_date=19291224&page_no=7 (1929.12.24.)

<표 9> 펠드에 감겨 여공즉사 (조선일보, 1937.03.29.)

펠드에감겨 여공즉사(女工卽死)

【대구지국전화(大邱支局電話)】 삼월이십팔일오전열시으십분경 대구신정(신정(新町))일백십오번지에 리상렬(이상열(李相烈))이가 경영하는 양말공장농진상회(농진상회(農進商會))에서 남산정(남산정(南山町))정기문(정기문(鄭埼文))의 장녀 순남(순남(順南))(일팔(一八))이란녀공이 작업중에 자동식양말기게 펠드에 빨려드러가 즉사하엿는데 그가정은극빈한하야 그 동생소순(소순(小順))(일사(一四))이와 함께 이공장에 버리를하야 여섯식구를 먹여살려오든차에 이가튼참변을당한것이라한다

[출처 : 조선일보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569919370329e1022&set_date=19370329&page_no=2 (1937.03.29.)

북. 실 짜는 거 있잖아. 북이 고장이 나면은 기계가 고장이 나면은 북이 마 저- 멀리 막 날아가거든. 그래 맞기도 하거든. 그게 젤 겁나더라. 그래가 간혹 다치는 사람도 있지 (중략) 고장이 나면은 **북이 날아가. 어디로 터질지도 모르고** 어떤 때는 꾸벅꾸벅 졸다가 탁 때리기도 하거든. 뭐 아무 데나 허리도 맞을 수도 있고 다리도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거 그 악몽 한 번씩 꿈꾸면 베틀이 날아가는 꿈** 있잖아. (중략) 이게 뾰족하거든 이게 날아와서 찍어봐라. 이게 또 차칵차칵 칼 적에 그 때 기계에 탁 잡아 넣어야 되는데 북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거든. 잘못 넣어뿌면은 두 개가 박치기 해버리면은 실이 후다닥 다 떨어지거든. 그건 대형사고거든 (B)

1929년 12월 24일과 1937년 3월 29일 자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대구편창제사에 근무하던 경북 성주군 출신의 노동자가 휴일에 물을 마시러 가던 중 기계에 옷자락이 끼여 참사를 당했으며, 양말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가 자동식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기사에 따르면 당시 공장은 사람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 즉사할 정도로 위험한 근무환경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았기에 B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악몽을 꿀 정도로 근무환경이 두려웠음을 언급했다. 날카로운 북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 (사고가 나는) 경우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 회전체 입구에 보면 뭐 가이드도 설치를 하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센서가 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접근하게 되면 자동으로 기계가 다 스톱(stop)하도록 그런 식으로 자동 제어장치가 있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최근 몇십 년 동안은 사고 났다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저희 공장에서는. 다른 데서는 사고 지금 생길 겁니다. 아마 (H, 남)

하지만 현재 섬유계열 종사자 남성인 H의 응답에 따르면 근무환경의 안전은 공장의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크다. 현재 H가 종사하고 있는 공장에서는 자동 제어장치를 통한 사고 예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10> 대구제사회사 여공숙사에 대화 (조선일보, 1937.05.21.)

| |
|---|
| 대구제사회사(大邱製絲會社) 여공숙사(女工宿舍)에대화(大火)<br><br>이천여공피난(二千女工避難)의소동(騷動)<br>원인불명(原因不明),손해(損害)는만오천원가량(萬五千圓假量)<br><br>【대구지국특전(大邱支局特電)】이십일 오전일곱시오십분경에 대구제사회사(대구제사회사(大邱製絲會社))녀공기숙사 이층으로부터 돌연 발화하야 삽시간에 불길은 건물전체에 퍼지어 녀공들은 피난하느라고 대소동을 연출하얏는데 회사소속의 소방대와 대구소방대가 출동하야 필사의 노력을한결과 기숙사 이층건물 일동과 공장상일동을 반소하고 창고일동은 전소한채 동여덜시십분에 간신히진화하얏다.원인은 아직 알수업는데 얼마전부터 수선하는중에잇는 기숙사 이층물건두는방에 내던진 담배불에서 일 |

어나지안헛는가하야 현장에 잇섯다는 녀공 두명과 목수한명을취조중이다.

손해는 일만오천원가량으로 한동안녀공이 이천명이나 되는만큼 자못 넘려가되엇섯는데 다행히 피해는업섯다.

[출처 : 조선일보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575219370521e1022&set_date=19370521&page_no=2 (1937.05.21.)

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전기랑 합성돼서 스파크가 일어나요. 다 타버려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해서 제가 2000년 9월 30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화재가 2001년도에 났어요. 내가 딱 퇴사하고 (중략) 다른 회사도 내가 입사해서 1년 반 만에 여기도 화재 났다. (C)

아가씨 때 갔던 데는 견 쪽에 폴리 쪽이면 기름에서 실을 뽑아내는 거에요. 근데 저희들은 목화나 대나무나 나무에서 뽑는 건데. 애들 옷 짜는 거는 천연소재니까 나무에서 실 뽑아내거든요. 그러면 먼지가 많이 날려요. 우리가 이렇게 있어도 먼지가 있는데 그런 먼지들이 10년 20년 쌓이면 천장에 보면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중략) 저희는 익숙해서 모르는데 정수기 필터 갈아주러 오면 코를 막고 들어오는 거예요.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데 햇빛에 보면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안에서 과일도 먹고 커피마시고 그러는데 오는 사람들은 막 낯이 가렵다고 얘기해요. 천장에 보면 먼지가 대롱대롱해요. 기름보다 화력이 좋아서 이런 사이징은 불이 엄청 나는 거예요. 스파크가 탁 튀어도 기름보다 빠르게 불이 붙어요. (D)

불 많이 났죠. 그 회사는 지붕에다가 아주 옛날 건물이라서 나무로 천장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먼지가 달려있으니까 불이 났는데 완전 영화의 한 장면인 거에요. 그래서 (같이 일하던) 언니가 월급을 받아서 창문가에 얹어놨는데 그래서 제가 '언니야 내가 갔다 올게'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월급봉투 갖고. 완전 영화의 한 장면이었죠. (D)

D의 응답에서 노동자들이 처한 두 가지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노동자들은 먼지가 가득한 공간 속에 생활하는 것이 익숙했다. 외부인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먼지 가득한 공간이었지만 노동자들은 그 속에서 일상생활을 지속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대구의 다섯 개 섬유공장(제일모직, 삼호방직, 대한방직, 내외방직, 한국나일론)을 중심으로 노동실태를 조사했다. 1961년 1월 29일 자 기사에서는 다섯 개 기업 중 제일모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먼지로 인해 작업환경이 청결하지 못했음을 언급했다.

<표 11> 노동실태 (조선일보, 1961.01.29.에서 일부 발췌)

노동실태(勞動實態)

대구(大邱)의오개섬유공장(五個纖維工場)을중심(中心)으로

서울대법대조사보고(大法大調査報告)

…제일모직(第一毛織)은 비교적(比較的) 환기시설(換氣施設)이양호(良好)하였으나 그외(外)의 면방(綿紡)의경우(境遇)에는(특(特)히 대한방직(大韓紡織))먼지로 인(因)하여 공기(空氣)가 대단(大端)히 혼탁(混濁)하였다 더구나 환기시설(換氣施設)이 극(極)히불량(不良)하여 노후(老朽)한 공장내(工場內)에 먼지가 가득차 있었고 악취(惡臭)가 대단(大端)하였다 (이하 생략)

[출처 : 조선일보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121361961012 9m1031&set_date=19610129&page_no=3 (1961.01.29.)

둘째, 공장에서 쌓인 먼지는 환기되지 않고 공장 곳곳에 축적되었고, 전기합성으로 스파크가 일어나는 경우 먼지는 불쏘시개가 되어 짧

은 시간에 대형화재로 이어졌다. D는 공장 창문에 월급봉투를 둔 동료를 위해 불 속에 뛰어들어 월급봉투를 갖고 나오기도 했다. 노동자들에게 화재는 노동자 본인의 생사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달린 문제였다.

## 제3절 노동자의 일상

### 1. 근무 일상

#### 1) 근무시간

섬유공장은 기계를 멈추지 않기 위해 노동자의 시간을 기계의 일정에 맞추었다. 따라서 생산직에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2교대 혹은 3교대로 근무했다. 1961년 1월 29일 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당시 2교대 기준 하루 근무시간 12시간, 교대시각은 오전 및 오후 7시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근무 시간대가 바뀐다. 휴식은 12시간 기준 1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었으며, 여성 노동자의 생리휴가제는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

<표 12> 노동실태 (조선일보, 1961.01.29.에서 일부 발췌)

| |
|---|
| 노동실태(勞動實態)<br><br>대구(大邱)의오개섬유공장(五個纖維工場)을중심(中心)으로<br><br>서울대법대조사보고(大法大調査報告)<br><br>…조사대상(調査對象)이되었던 오개공장중(五個工場中)에서 한군데를제외(除外)한 나머지 사개공장(四個工場) 즉제일모직대한방직(第一毛織大韓 |

紡織) 삼호방직(三護紡織) 내외방직(內外紡織)에서는 모두 일일십이시간(一日十二時間) 노동제(勞動制)를원칙(原則)으로 하고있었다(특별(特別)한경우(境遇)에는 십시간반(十時間半)을일하고있다)그리하여 노동자(勞動者)를 주야간반(晝夜間班)으로이분(二分)하여 공장(工場)은이십사시간가동(二十四時間稼動)하도록하고있다 주야간반(晝夜間班)의 교대시각(交代時刻)은 오전(午前)및오후칠시(午後七時)이었으며 일주일(一週日)마다 주간(晝間)은 야간반(夜間班)으로 야간반(夜間班)은 주간반(晝間班)으로 서로바뀌도록 되어있다

휴게시간(休憩時間)은 십이시간(十二時間) 노동(勞動)을하는데도 역시(亦是) 대개(大槪)는 일시간(一時間)밖에 주지않고 있었다따라서 실제(實際)로 작업(作業)하는시간(時間)은 십일시간(十一時間) 내외(內外)이다동로기준법(動勞基準法) 제사십이조(第四十二條)는 노동시간(勞動時間)을 휴게시간(休憩時間)을제(除)하고일일팔시간(一日八時間) 주사십팔시간(週四十八時間)을기준(基準)으로 한다고정(定)하고 예외적(例外的)으로 당사자(當事者)의 합의(合意)에의하여 주육십시간(週六十時間)을 한도(限度)로 근로(勤勞)할수 있다고 규정(規定)하고있다 사실(事實) 노동보호입법(勞動保護立法)의 제일차적(第一次的) 대상(對象)은노동시간(勞動時間)의 제한(制限)이었고 그러나 현실(現實)로는 이를 시행(施行)하지 않는곳이있으며 위에열기(列記)한 사개공장(四個工場)의 경우(境遇)도이에 속(屬)하는 것이다

그밖에 주일회(週一回)의 휴일법정공휴일(休日法定公休日) 연차유급휴가(年次有給休暇) 월차유급휴가등(月次有給休暇等)을 규정(規定)한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의 제조항(諸條項)이 제대로시행(施行)되고있는 곳은 거의없었으며 여자(女子)의 생리휴가제(生理休暇制)는 전연(全然) 시행(施行)되고있지않았다 (이하생략)

[출처 : 조선일보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121361961012 9m1031&set_date=19610129&page_no=3 (1961.01.29.)

D에 따르면 2교대로 근무하는 경우 주간 평균 11시간, 야간 평균 13시간 근무를 했으며, 3교대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하루 평균 8시간 근무한다. 인터뷰에 따라 D의 일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 여성 노동자 D의 하루

| | |
|---|---|
| 오전 9시 아이 등교<br>점심시간 아이 하교<br>오후 9시 잔업<br>오후 9시-오전 2시 다른 공장 알바<br>오전 2시 귀가<br>오전 3시 취침<br>오전 6시 기상 및 아침 준비 | 오전 7시 20분 출근(통근차)<br>오전 8시 근무 시작<br>오후 3시 퇴근<br>오후 3시-오후 7시 잔업<br>오후 7시-오전 2시 다른 공장 알바<br>오전 2시 귀가<br>오전 3시 취침<br>오전 6시 기상 및 아침준비 |

그때 어떻게 일을 했냐면 9시에 애를 학교 보내놓고 나면 점심시간에 애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애를 데려와서 한 8시, 9시까지 잔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애가 지겹잖아요. 그래 딸도 고생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는 하고 나서 또 집에 애 데려다놓고 또 알바를 가는 거예요. 다른 회사에. 애는 집에 재워놓고. 밤 9시 넘어서 새벽 2시, 3시까지 일을 해주고 오는 거예요. 그때는 2-3시간 자고 댕겼는 거예요. (D)

이제 맞교대할 때는 인자 알바를 가면 아침 8시에 애를 학교 보내놓고 출근을 해요 7시 20분 통근차 타고 가서 회사 8시 들어가서 일을 하면 3시 되면 퇴근을 해요. 그러면 보통 거기서 잔업을 또 해요. 오후 7시까지. 그러면 또 다른 데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와서 (일을) 해달라 그러면 다른 공장에 가서 새벽 2시까지 해주고 오는 거예요. 어 그래가 와가지고 씻고 하면 3시에 잠을 자면 또 애들 먹거리하고 챙겨야 되잖아요. 그럼 또 3시간 자고 일어나서 애들 먹을 거 뭐 김밥, 샌드위치 해놓고 그래갖고 아침에 출근하고 (중략) 그러니 제가 애들한테 먹인 거라고는

떡볶이, 김밥, 샌드위치 매번 그런 식이었어요. (D)

D는 두 아이를 홀로 돌봐야 했기에 출근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아이들을 맡아 주거나 편의를 봐주곤 했다. 그는 특히 본인이 근무하는 공장에서 퇴근한 후 다른 공장으로 아르바이트를 가야 했기에 다른 노동자들보다 근무시간이 월등히 길었다.

한편, 산업체 고등학교 학생 B의 일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체 고등학교 학생들은 아침반, 오후반, 야간반으로 나누어 3교대, 8시간씩 근무를 했다.

<표 14> 산업체 고등학교 학생 B의 하루

| | |
|---|---|
| <아침반><br>오전 6시 기상<br>오전 7시 출근<br>오후 2시 퇴근<br>오후 3시 30분 등교<br>오후 5시 수업 시작<br>오후 8시30분 하교<br>오후 10시 기숙사 점호 | 오후반: 오후 2시 출근, 오후 10시 퇴근<br>야간반: 오후 10시 출근, 오전 6시 퇴근<br>*단, 오후반 근무 시 등교를 하지 않음 |

그게 아침반, 오후반, 야간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 여덟 시간 근무하는데. 그라면은 아침반 하면 아침 한 7시 출근했나? 2시 정도 되면은 퇴근했으니까. 2시에 끝나제? 그럼 인자 기숙사서 씻고 학교 갈 준비하거든? 학교 3시 30분 되면은 가야지. 그때 가면 5시부터 수업 시작했는가. 가서 8시 30분 정도 되면은 수업이 끝나거든. 그라고 아침반 갔제? 오후반 되면은 학교를 못가. 2시부터 출근이니까 [그럼 학교에서 봐주나요?] 그렇지. 오후반 되면은 일하러 가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와카노 카면은 오후반 한다꼬 우리가 아침에 가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기라. 원래 정규 학생이 있잖아. 우리는 그 원래 **여상 주간부 학생들

이 집에 가고 난 뒤에 공간이 비면 그때 이용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일단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오후반 되면 학교 안 가. 전체적으로 다 안 가지 오후반은. 그리고 인자 야간 할 적에는 오후반 드가면은 2시에 가서 10시에 나오거든? 그럼 야간반은 10시에 드가서 아침에. (B)

산업체 고등학교 학생들은 오후반으로 근무하는 경우 오후 2시에 출근해 오후 10시에 퇴근을 하게 되므로 등교를 하지 않는다. 즉, 이들은 오전반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학교에 갈 수 있었다.

2) 감시

화재에 취약한 섬유공장은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도 한다. 하지만 C에 따르면 CCTV는 사실상 감시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 노동자들은 언제든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가 기계 부속품처럼 움직이게 된다고 응답했다. 즉 CCTV로 새로운 규율이 형성되어 노동자들은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하게 된다.

점심시간도 근로계약서에는 1시간 휴식에 도장 쾅 찍어놨어요. 근데 밥도 교대로 안 먹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니까 휴식시간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쁜데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니까 사장님은 뭐 목적은 공장에 불 날까봐 CCTV 달아놨다고는 하는데 그걸 컴퓨터에 앉아서 직원들 뭐 하는지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직원이 뭐 하고 있으면, 스피드가 좀 낮다 그러면 부르는 거예요. 간부를. “스피드가 400이 돼야 하는데 왜 300으로 돌리고 있느냐 빨리 빨리해라” 이런 식으로. 목적은 화재 예방인데 그게 감시로. (D)

누군가가 항상 지켜본다는 생각에 근무시간에도 항상 긴장함은 물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식시간과 점심시간도 자유롭게 보내지 못했다. 이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순차적으로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푸코는 근대의 규율사회와 감시사회의 출현을 밝히면서 근대 사회를 감옥의 규율과 죄수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방법이 사회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본다. 근대적 형벌 제도로서의 감옥은 처형이 아닌 감금을, 보복이 아닌 교정을 기본 목표로 하며, 이 같은 관점에서 푸코는 감옥, 학교, 병원, 공장은 근대 사회 규율 제도를 토대로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이상의 논리에 따르면 근대 사회에서는 규율이 '지배의 일반적인 양상'인 것이다. 따라서 공장은 학교, 감옥, 병원 등과 함께 근대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규율 장치로 정의(정규영, 2013)할 수 있다.

푸코는 신체에 대한 권력의 규율화 기술을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권력은 신체의 각 부분이 빈틈없는 통제에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받게 함으로써 신체가 기반이 된 미시권력의 생성을 목표로 삼는다. 둘째, 근대화 사회의 규율 권력은 겉으로만 민주적인 방식을 취하지만 사실은 신체를 기계처럼 만든다. 셋째, 근대 사회의 규율기술은 '신체가 유용하면 유용할수록 신체를 더욱 복종적으로 만들고, 역으로 신체가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더욱 효율적인 그런 관계'의 메커니즘을 만든다. 그러므로 인간의 신체는 권력의 규율화 기술에 따라 해체되고, 분해되고, 재구성(Foucault, 2003)된다.

CCTV를 통한 감시체계 구축으로 노동자들은 자신의 신체를 기계처럼 만들게 된다. D는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끝까지 남아 바닥 청소를 하던 동료를 언급하며 CCTV는 관리자가 언제든지 본인을 지켜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업무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었음을 언급했다.

### 3) 일탈 행동

하루 중 대부분을 공장에서 근무했던 여성 노동자들은 가끔 일탈 행동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장은 여성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자였던 여성 노동자들을 함부로 내쫓을 수 없었다.

일 드가야되는데 '아씨 오늘 재끼자' 카민서 가기 싫어가 팔공산 가가 놀다 오고 그다음 날 욕 쿠사리 얻어묵고 몇 번 그랬지. 그기 기술이다 보니까 한 세 명만 나가뿌면 기계 한 60대 세워야 한다 (중략) 욕 얻어 먹지 그러고 그냥 넘어가지. 그때는 그게 기술이라서 빗 짜는 재직 하는 사람들은 지들 마음대로 못 구하니까 빨리. 그니까 우리 못 자른다니까. 그거를 미끼삼아 재끼자 카고 가뿌는기지. 많이 그랬다 한 4-5명 씩 모다가 가뿌고 그랬지 뭐 번갈아가면서. (A)

나는 많이는 안 나갔다. 근데 애들 마이 놀러 댕깄지 근데 이거 놀러가 뿌면 일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럼 죽을 맛이라 그날 일하는 사람들은. (중략) 부장하고 그런 사람들은 혼내긴 하지 근데 지들도 다 알드라 우리 놀러댕기고 싶어하는 거. (E)

여성 노동자들의 잦은 일탈에도 공장은 기술자를 구하지 못하는 구인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다음 1984년 6월 21일 자 기사는 섬유업계가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을 언급한다.

<표 15> 근로자들 직장선택 달라진다 (조선일보, 1984.06.21.)

근로자(勤勞者)들 직장(職場)선택 달라진다
"임금(賃金)보다 작업(作業)환경"

요즘 섬유업계는 성장산업인전자업계등에 일손을 빼앗겨어려움을 겪고있다.전자업계등은 또 그나름대로 더 많은공원을 필요로 하고있지만,충분한 근로자를 구하지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섬유업계는 그동안에도 여공들이 결혼과함께 직장을 떠나는 일이많아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최근들어선근로자들이 임금보다는 좀더작업환경이 나은 전자업종등을찾아 이직하고있기 때문에 더욱곤란을 받고있는 것이다. 섬유업체가 가장많이 몰려있는 대구의 경우,필요한 근로자가 6만7천명이지만 20일현재확보된 인원은 5만7천여명으로 15%가 부족한실정이다. 이때문에 업체에 따라서

는필요인력의 75%정도밖에 확보치 못하고있는 형편이어서,정상 가동에

위협을 받고 있다.

[출처 : 조선일보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194491984062
1m1111&set_date=19840621&page_no=11 (1984.06.21.)

당시 섬유산업은 호황기를 맞이했던 전자업계로 이미 많은 노동력을 빼앗긴 상황이었다. 따라서 공장은 여성 노동자들을 고용한 고용주이면서 동시에 기술자였던 여성 노동자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을이기도 했다.

4) 에피소드

노동자들은 하루 대부분을 작업장에서 지내기에 당시 작업장 내에서는 수많은 에피소드가 일어났고, 그만큼 소문도 빨랐다. C는 성(性) 관련 에피소드를 통해 당시 성과 관련된 담론은 수치스럽거나 숨겨져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음을 언급했다.

> 기숙사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그 사람이 검단부에서, 원단을 다 짠 다음에 검사하는 부서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항상 걸음걸이가 이상했어. 가슴을 젖혀서 이만큼 크고 얼굴은 쪼매난데 배 부분에 살이 많이 쪘던 사람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사감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저 언니야는 좀 걸음걸이도 이상하고 배도 와저래 부르노?' 카면서 임신한 사람 보면 알거에요. 그렇게 걸어당겼어. 그러다가 어느 날 기숙사가 발칵 뒤집히고 앰뷸런스(구급차)가 오고 그랬어. 아기를 낳았는거야. 배가 아파가지고 하혈을 하고 사감 선생님이 그때 미스였거든요 나이는 많았지만. 얼마나 놀랐겠노? 일단 병원을 갔어. 밑에서 피를 흘리니까. 산부인과를 갔는데 이게 아 놓는기다 이래 된기라. 그래서 갔는데 어떻게 본인이 임신한 사실도 모르고. 그래서 '아빠는 누구고?' 이래 됐는데 알고 보니까

회식하러 가서 잘못돼서 임신이 됐는데 이 사람이 자궁 기형이었는 거에요. 그러니까 임신을 했어도 생리를 꼬박꼬박하고, 그러니까 그게 생리인 줄 알았는 거야. 그리고 그때는 이런 인터넷 발달도 없었고 그러니까 상식이 부족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 아빠 누군지 알아내가 책임을 지네 못 지네 이런 [같은 공장에 근무하셨던 거였어요?] 응 같은 공장. 그니까 그쪽 회사에서 같이 있었다가 그카고 난 뒤에는 헤어진 기라. 그래갖고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한 거야.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 거지 [그분은 아기 낳고 나서 공장에 있었어요?] 아니. 다음 날 짐 싸갖고 어디론가 사라져뿌렀지. 어떻게 다녀. (C)

여성에게 성적인 지식과 정보가 폐쇄되었던 1970년대에 성과 관련된 지식과 담론은 부끄럽고 감추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김원, 2005). 첫 번째 에피소드는 성과 관련된 지식과 담론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고스란히 1980년대까지 이어졌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생산직 남자와 사무직 여사원이 회식을 가서 어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애한테 너무 관심이 많았던 거야. 하여튼 어딜 끌고 갔어요. 근데 끌고 갔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술도 약간 취하고 '니 괜찮나' 카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관방에까지 갔는데 근데 나이가 21살밖에 안 됐으니까 인제 이렇게 다가올려고 했더니 덜컥 겁이 났겠지? 그래서 도망쳐 나왔는 거에요. 이 남자는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근데 그것이 소문이 나서 여자 쪽 엄마가 찾아와서 난리가 난 거야 [이런 일이 있으면 회사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을…] 바로 컷팅. 그때 당시로는 회사에서 굳이 '니 나오지마'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슬그머니 부끄러워서 못 나오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월급은 한참 후에 주고 퇴직금도 한참 후에 주고 그런 일들일 섬유 쪽에 특히 심했어요. 그런 생산직과 뭐 어떤 사람과 사람이 너무 많은 곳이다 보니 별별 일들이 다 있어요. (C)

한편, 회식에서 생산직 남성이 사무직 여성과 성(性)행위를 시도하다 여성이 달아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후 회사의 대처는 굉장히 성차별적이었다. 사건의 내용과 관계없이 회사는 남성

에게 내리는 최대의 징계는 근무지 이전이었으나, 여성 노동자는 퇴사 처리가 되었다. 혹은 여성 노동자의 자발적인 퇴사였을지라도 정확하게는 사회적인 시선으로 인한 퇴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사무실에 총무과 남자직원과 여사무원이 있었는데 여사무원이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일찍 섬유 쪽에 발을 들이게 됐는데, 이분은 유부남이었어요. 근데 여동생처럼 너무너무 잘해준 거예요. 근데 애는 아빠가 없으니까 이 사람을 아빠처럼 의지를 하게 된 거에요. 근데 거기까지만 딱 좋았는데, 섬유는 또 다른 데 하고 좀 달라서 업무할 때 왠지 다른 곳보다 남녀가 붙어있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애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아이가 어느 날 같이 결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다음 날 같이 결근을 했으면 남들이 다 이상하게 볼 거잖아. 안 그래도 '터질 게 터졌다. 맞는갑다' 했는데 진짜로 두 사람이 만나서 남자는 이혼을 하고, 여자애는 정말 못 헤어지겠다 하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애가 했는 말이 '나는 이 회사에 입사해서 이분을 만난 것이 행운이었다' 할 만큼. [그럼 불륜이잖아요. 회사 차원에서 어떤 제재가 없었나요?] 남자는 서울 본사로 발령을 내려버리고, 우리 회사가 대구공장, 서울 본사였거든요. 이 여사무원은 퇴사 처리를 하고 (중략) 그렇게 됐을 때 여자에게만 가혹한 어떤 불합리한 일을…. (C)

이상의 사례들을 통해 작업장에서의 성(性)문제는 여성에게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문제를 일으킨 여성을 일반 여성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회사에서 여성 노동자만 퇴사시키는 차별적인 제재로 이어졌다.

## 2. 기숙사 생활

섬유공장에서 기숙사는 필수 요소였다. 타지에서 대구로 온 경우 노동자들의 취업 조건은 기숙사였다. 근무환경을 볼 때 이들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공장의 기숙사 유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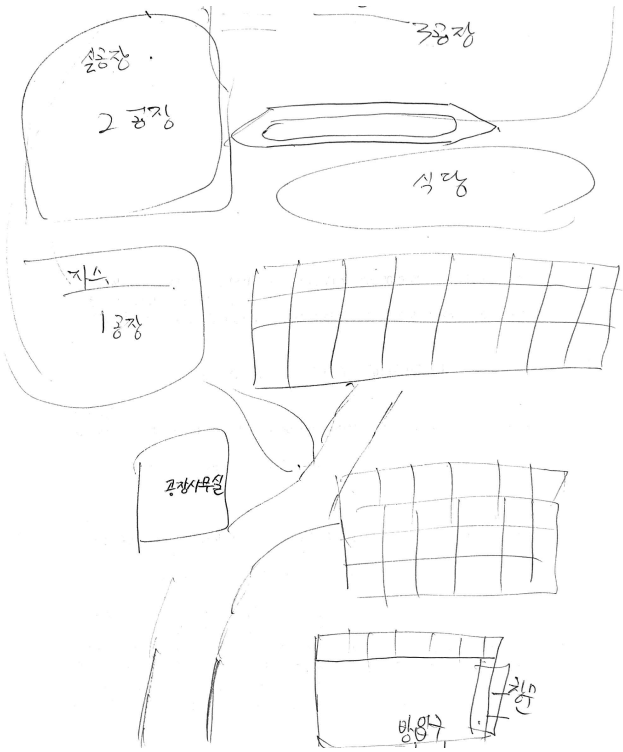
(기숙사에는) 생산직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사무직원 중에서도 저기 뭐 합천이나 대구가 아닌 쪽에서 직장을 구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 입사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럼 친척 집에 있기도 뭣하고 그러니까 회사에 기숙사가 있나 없나 그거부터 물어. 그럼 '생산직 기숙사가 있는데 그래도 괜찮나?' 그러고 그냥 들어가지. (C)

공장의 기숙사는 1920년대 일본이 생산의 합리화를 위해 테일러리즘의 원리를 도입하고 다양한 산업합리화를 시작하면서 도입되었다. 이후 일본 자본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일본의 공장체계와 공장 조직의 분업방식까지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되었다. 기숙사는 노동자의 확보와 규칙적인 작업 시간에 노동자를 적응시키기 위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노동자의 휴식과 숙소로서의 공간이라기보다 노동자의 전 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장소였다(태혜숙 외, 2004). 기숙사의 시설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편차는 있었지만 한 방에 3명에서 6명이 함께 생활했고, 공장에 따라서는 매일 점호를 하는 곳도 있었다.

한 방에 네 명씩 쓰고 그랬지. 방에 옷장 네 개 붙어있고, 세면대 한 데 쓰고. 세면대는 공동 세면대를 쓰고 방은 뭐 옷장도 한 네 개 붙어가 있고 뭐 (중략) 한 방에 네 명씩 쓰고 샤워실은 안게 있는 게 아니고 공동 세면장 거기서 씻고 빨래하고 다 그랬지. 그때는 세탁기가 없었으니까. 손빨래. 이렇게 해사 손잡이 달 리가 문 열고. (A)

기숙사 아파트가 있었어. 5층짜리였는가? 3층짜리였는가 모르겠다. 암튼 몇 층까지 아파트였거든? 요 한 동 있고, 또 요래갖고 여기 또 크게 한 동 있었다 카이께네. 기숙사 사감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방직은 컸거든. 그래가 밑에 내리가면은 전부 공장이었다 (중략) 여섯 명은 충분히 잘 그럴 방이었다. 거는 **방직 같은 경우에는 되게 깨끗했다. 또 매일 점호를 하거든? 군대처럼 8시 정도 되면. 학교 갔다 와서. 아 점호가 늦게 했나 10시 되어서 했나? 하도 오래돼서. 여튼 점호 시간이 있어. 그러면 방 청소 깨끗하이 하고 걸레 깨끗하게 빨았는지 확인하고. 일렬로

딱 앉아가지고 '점호 시작하겠습니다' 카면은 그 감사가 있거든. 감사가 와가지고 감사하고 그 밑에 뭐 부장이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 같이 와가지고 방 청소 검사하고. 구석구석 체크하고 근데 추저브면은 다시. (B)




<그림 9> B가 그린 공장과 기숙사 위치

기숙사생의 외박은 사전 허락을 받아야 했으나 기숙사에 거주했던 노동자들은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기존의 연구(대구여성가족재단, 2015)와는 달리 A의 응답에서는 공장 규모별로 다르지만,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통금시간 전까지 외출은 비교적 자유로웠음을 알 수 있다. 즉, 사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통금시간 전까지 외출이 자유로웠다.

[외출은 자유로웠나요?] 네 경비실에서 뭐 나가는 건 말 안 해요. (A)

내가 몇 시에 나가면은 몇 시까지 오늘 외박한다 카면 외박 끊어가지고 나가면 몇 시까지 들어오라 카고. (B)

엄격했죠. 외출했다가 돌아올 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외출할 때 꼭 기숙사 사감 선생님한테 외출증을 끊어서 경비실을 통과해서 가고. 그래서 몇 시까지 돌아와야 하는 게 있어요.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은 최소한 11시까지. 근데 연말되고 그러면 회식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무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나이트클럽 자주 갔거든요. 연말에? 여사원들 모임이 있어 그럼 그 모임에 회장이 저라서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사감 선생님을 찾아가. '오늘 우리 여사원 모임 회식이 있다. 아마 1차 밥 먹고 2차 갔다 오면 꽤 늦을 텐데 제가 책임지고 회사 여기까지 데려다 줄테니까 몇 시까지 오겠으니 조금 늦어도 봐주십시오' 이렇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C)

옛날에는 통금시간이 있었어요. 12시인가 뭐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옛날에. 그러면 90년대. 그때는 여자 기숙사는 사감 선생님이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연령대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사감 선생님이 있어서 기억으로는 10시인가 11시인가 통금시간이 그렇게 돼 있고요.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는 있는데 외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뭘 해야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G, 남)

공장은 많은 수의 노동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자체 규율을 만들었다. 관리와 통제를 위해 그리고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이들의 노동습관, 규범을 준수하는 태도, 사고방식을 세밀하게 관리하기 시작했다(Foucault, 2003). 통금이라는 제도 아래 이동과 시간을 제한받았던 노동자들은 공장의 규율 속에 스스로 적응시킬 수밖에 없었다. 기숙사가 삶의 터전이었던 여성 노동자들에게 통금이라는 제도는 단순 시공간만을 제한하는 장치가 아니었다. 기숙사에서 퇴출당하는 것은 직업과 동시에 거주공간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 3. 여가 및 통행금지

여성 노동자들은 작업이 없는 주말을 활용해 외출했다. E는 작업을 쉬는 것보다 정해진 근무시간을 벗어나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사실이 더 좋았다고 응답했다.

> 돈 벌면 쓰고 싶잖아. 일단 그러면 쉬는 날에 시내 저기 대백(대구백화점) 거기도 가고. 지금 한일극장 그 자리 부근에 빵집이 있었어요. 거기 또 엄마가 빵을 좋아하니까 놀러 갈 때 사 오고 많이 했지. 나가는 거 재밌었다. 그냥 그 자체가 좋았거든. **맨날 가만히 갇혀 있다가 내 맘대로 나가려니까 좋거든** 그게. (E)

하지만 외출을 하는 경우, 박정희 정부 당시 시행되었던 통행금지령이 있었기에 오후 11시 이전에는 복귀했다. 특히 E는 통행금지령과는 별개로 아버지가 정한 통금시간 때문에 집으로 일찍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 그때 뭐 중앙로 시내. 놀러 엄청 갔지 한 22살 이럴 때는. 요즘 애들처럼 마이 대단하게 놀지는 몬하고. 그때는 통행금지도 있었잖아 요즘은 통행금지 없으니까 뭐 가도 우리는 11시 되면 와버리고 그랬어 [만약 통행금지를 어기면요?] 통행금지 그거 어기면 잡혀가는데? 그렇게는 과감하게는 못하지 우리는 또 간이 약해가 (중략) 내가 결혼을 79년도에 했거든 우리 어릴 때는 통행금지가 있기 때문에 밤 11시 되면 무조건 집에 왔다. 차도 끊기고 택시타고 와야하는데 뭐 (A)

> 밤 되잖아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어. 그니까 놀다가도 시간 계산 잘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야지 늦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는 늦게 들어가면 혼나 아버지한테. 무섭거든 무서워서 일찍 [혼난 적 있으세요?] 많지. 해 떨어지면 바로 찾아 아버지가. 여자애가 밖에 있으면 안 된다고 (E)

한편, 1945년 9월 7일 이후로 실시되었던 야간통행금지는 36년 동

안 시행된 후 1982년에 폐지되었다. 여성 노동자들은 야간통행금지가 완전히 폐지되기 전까지 국가가 정한 시간에 개인의 일정을 맞추어야 했다.

> 그때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버지 공장에서 골덴지를 생산했는데 유일하게 아버지 공장에서 나온 골덴지를 실은 트럭만큼은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특별히 운행을 하도록 허락을 해주기도 하고. 공장 이름 말하면 보내주기도 하고. (G)

반면 응답자 G에 따르면 야간통행금지에도 예외적으로 통행을 허용하는 특수한 사례가 있었음을 언급했다. 야간통행금지 시간에 섬유공장에 소속된 차량과 관리직급 노동자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이는 국가 규율의 효력을 예외적으로 제한할 만큼 섬유산업이 중요했음을 시사한다.

## 4. 학생과 교육에 대한 동경

여공의 '가족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라는 지배적인 담론과는 다르게 실제로 여성 노동자들은 교육이라는 '공적 영역'에 대한 향학열을 가졌다. 많은 여성 노동자들은 공부가 하고 싶었지만,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들은 조금이라도 학교와 가까워지기 위해 도시로 그리고 공장으로 향했던 것이다(김원, 2005). 김원(2005)은 그의 연구에서 이를 여성 노동자들의 '공장 동경'이라 했지만, 교육을 위해 노동을 수단으로 삼았던 여성 노동자들이 가진 것은 공장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동경'이었다.

> 나는 섬유에 안 했으면은 내가 공부만 좀 더 했더라면은 뭘 해도 과감하게 똑 부러지게 무슨 전문직을 했을 수 있지 않겠나 내 깡을 보면은. 섬유에 일하는 만큼 공부를 했으면은. 이런 생각은 자주 들어요. 공부를

했으면 내 국회의원감이다. (웃음) 섬유에 일을 그래, 30년 넘나? 30년 되겠네 전부 다 합하면은. 야간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은 벌써 내 뭐 한 자리 선생이라도 하고도 남겠다. 국회의원 해 먹겠다 혼자 그런 생각 한다. (A)

가족부양의 의무 없이 본인의 자립과 독립을 위해 일을 시작했던 A는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만약 섬유산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면 전문직에 종사했을 것이라는 응답은 교육에 대한 열망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면 가장하고 싶었던 건, 돈 벌면 가장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공부. 공부 쪼매 해볼라고 돈 좀 벌고 나서 이래 학원가가 하니까 야간하고 하니까 잠이 와서 못하겠대? 대신동 뭐 무슨 학원이고 영어학원 가가 좀 배워보겠다고 좀 다니다 보니까 적성에 안 맞는지 야간하고 가고 저녁에 디고 하니까 몬하겠드라 그래가 안 했어. 학원 조금 다녔지 그때 18살 이었나? 가보니까 잠도 오고 디고 몬하겠드라. (A)

이어 돈을 벌면 가장하고 싶었던 것이 공부라 응답한 대목 또한 A가 교육에 대한 열망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A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동경하며 영어학원에 등록했다.

공부가, 공부는 마 어릴 때 몸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옛날 초등학교도 2년인가 아파서 못 갔어. 그니까 별로 마 머리 속에 들어오도 안 하고 집에 혼자 있으니 오빠들 다 나가버리고 그랬는데, 직장에 이래 섬유에 댕길 때 부러울 때가 여고생들 교복 입고 다니고 다니는 거 보면은 제일 부럽대. 그럴 때. 그래가지고 좀 해볼라고 학원 가보이께네 공부고 뭐고 관심이. 머리 속에 안 들어가. 그때만해도 오래됐잖아 공부를 안 했는지가. (A)

한편, E는 세 명의 동생을 모두 학교에 보냈다는 것이 뿌듯했지만 동생들의 '학생' 신분을 부러워했다. 어려웠던 가정 형편으로 중학교

진학을 포기했던 그는 '학생인 본인'의 모습을 자주 상상했다.

> 내가 학교 못 갔잖아요. 동생들 학교 다 보내고 나니까 나중에 너무 허전한 기라요. 그래가꼬 '나도 저래 학교를 다녔으면 어쨌을꼬' 그냥 혼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셋째가 공부를 또 잘해서 대학을 갔는데 그거 보면서 뿌듯하기도 했는데 쪼매 부럽더라고 (E)

C는 학창시절 짝을 가르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교사의 꿈을 가졌다. 특히 체구가 작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린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라 생각했다.

> 저는 정말 공부 정말 잘했어요. 다른 거 잘할 게 없고 음악, 미술, 예체능은 할 수가 없었고. 할 수 있는 거는 학교 공부. 예체능 외의 국영수 이런 거. 그거는 나 공부 잘했거든요. (중략) 저는 원래 꿈이 이랬어요. 나는 키도 많이 안 크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는 걸 좋아하니까 학창 시절 때도 짝꿍을 선생님이 공부 못하는 짝을 붙여주면서 '얘는 기초과목이 부족하니까 니가 옆에서 돌봐줘라' 이런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가르쳐보니까 걔가 잘 따라오고 그니까 뿌듯하고 어린 마음에도 가르치는 보람이 이거구나 이런 걸 느꼈어. 그니까 나는 그럼 키도 작고 이러니까 '경북대학교를 가면은,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아이들이 쪼매쪼매하이 나보다는 작을 것이 아닌가' 이랬거든 막연히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C)

성적도 뛰어났던 C는 대학 진학을 꿈꿨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바로 취업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대졸 출신 사원과의 차별로 다시 대학 진학을 꿈꾸게 되었다. 실제로 C는 직장을 다니면서 섬유 관련 학과를 졸업했다.

> 그래서 제가 '꼭 대학을 가고 만다. 나도 기회만 돼 봐라' 그래서 계속 야간 대학 갈 곳이 있는가를 항상 봤어요. (C)

D 또한 교사를 꿈꾸어 교육대학교로 진학하기를 원했으나, 입시 실패 후 섬유산업에 종사하기 시작했다. 특히 D는 학원비를 벌기 위한 목적으로 섬유공장에 취직한 것은 그가 얼마나 교육에 대한 열망이 강했는지를 알 수 있다.

> 산골에 살고 있었는데 대학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공부를 시켜달라고 하니까 솔직히 시골에서는 부모님이 공부시키기 쉽지 않잖아요. 오빠도 대학생이고 밑에 동생도 셋 있는데 아버지가 그때 조건을 달았어요. 대학을 보내주되 교대를 가면 보내주겠다. 근데 대구교대를 내가 떨어졌어요. (D)

이후 D는 대구에서 6개월 일하면서 학원비를 마련해 고향으로 내려갔지만, 오빠의 대학 등록금을 내주게 되면서 다시 섬유공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 6개월만 일해서 학원비 벌어서 내려가겠다고 그래서 올라왔는 거에요. 그 언니 따라서 6개월간 일을 했는데 돈을 모아서 8월쯤에 내려오니까 공부를 하겠다고 내려갔는데 (중략) 오빠 등록금을 일부 내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걱정하고 계시길래 그러면 내가 돈 모든 거 오빠 주고. (D)

한편, 1961년 1월 29일 자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5개 공장 근무자 750명을 조사한 결과 대학 졸업이 5%, 고등학교 졸업이 22%, 중학교 졸업이 40%, 초등학교 졸업 30% 그리고 무학자 3%였다. 비록 성별 구분이 없는 수치지만, 당시 섬유산업에는 여성 노동자 수가 훨씬 많았기에 여성 노동자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뷰를 통해 여성 노동자는 학업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기보다 현실에 수긍하여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혹은 잠정적으로 연기했다고 볼 수 있다.

<표 16> 노동실태 (조선일보, 1961.01.29.에서 일부 발췌)

노동실태(勞動實態)

대구(大邱)의오개섬유공장(五個纖維工場)을중심(中心)으로

서울대법대조사보고(大法大調査報告)

…학력(學歷)을기준(基準)으로 조사대상(調査對象)을분석(分析)하여보면 대학졸업(大學卒業)이 5% 고등학교졸업(高等學校卒業)이22%이며중학교 졸업(中學校卒業)이 가장많아서 40%이었다 그리고 국민학교(國民學校)를 졸업(卒業)하였다는 사람이 30% 무학자(無學者)는 불과(不過)3%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비교적(比較的) 수준(水準)이높은것을 알수있다 출신도별(出身道別)로 구분(區分)하여본 결과(結果) 역시지역적(亦是地域的)으로 가까운 경북(慶北)이55%로 가장많았고 인접(隣接)한경남지방(慶南地方)이 22%로 차위(次位)를차지하였다 멀리 제주도출신(濟州道出身)도 5%가량있었고 서울을고향(故鄕)으로한 사람도 가끔볼수있었다 그리고 그들의36%가 종교(宗敎)를가지고 있다. (이하 생략)

[출처 : 조선일보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121361961012 9m1031&set_date=19610129&page_no=3 (1961.01.29.)

## 제4절 '섬유 도시' 성장과 쇠퇴

### 1. 호황기

섬유공업은 1960년대 중반에 나일론을 시작으로 폴리에스터 등의 합성섬유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면방, 모방 등 천연섬유 중심에서 합성

섬유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이후 수출경쟁력이 높아지면서 1963년에서 1975년까지 수출량이 103.9배 늘어났고, 전체 수출에서의 비중도 1975년에 36.8%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동일기간 섬유산업의 부가가치도 50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 전체 제조업에서의 비중은 1975년 기준 21.1%를 차지했다(이재덕 외, 2014). 섬유산업은 1980년대 초중반까지 호황기를 이어갔다.

> 사무직은 원래 명절 때는 쉬어요. 현장도 쉬지만, 사무직도 같이 쉬었어요. 근데 너무 일이 많아서 현장을 명절을 보내고 온 뒤에 현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제가 하는 일을 미리 줘야 하는 거예요. 미리 해놔야 현장에 딱 왔을 때 '어 이거 해야 하네?' 하는 거예요. 그때는 수출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때 공급을 못 해줘서 컨테이너에 돌을 막 싣고 무게 맞춰 싣고 무게 맞춰 보내기도 했어요. 그래놓고는 나중에 '어머 거기에 왜 돌이 들어갔지?' 이러면서 시치미 뚝 떼고. 클레임도 받고 이랬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일을 늦게 해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명절에도 설계과 직원들 와서 해라' 그러면 해야지 (C)

> 한 달에 백만 야드 생산하는 설계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저는 명절에도 나가서 현장이 작업을 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로 성과급도 받고 그랬어요. (C)

C는 1980년대까지 명절에도 출근해야 할 정도로 바쁜 시기를 보냈다. 특히 수요량이 많은 관계로 수출량을 맞추지 못할 경우, 수출 컨테이너에 수출품 대신 돌을 넣어 보낼 만큼 섬유산업은 호황기를 맞이했다. 한편, G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공장의 24시간 운영에도 생산량이 수요량 따라가지 못했던 시절을 언급했다. 특히 그는 아버지가 벌어온 돈을 어머니와 식모 둘이서 밤새 헤아릴 정도로 섬유산업이 호황이었음을 설명했다.

> 아버지가 돈을 갖고 오는데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냐면. 밤새 식모랑 같이. 식모가 둘이 있었는데 세 명이 밤새 돈을 헤아리다가 다 못 헤아리

고 새벽녘에 잠들었을 정도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G)

한국전쟁 이후 면제품 수요가 늘고, 1961년 정부가 외국산 의류 수입을 금지하면서 국내 섬유 시장은 크게 성장했다. 이후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 화학섬유 생산설비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수출량도 증가했다. 더불어 대구시는 대한방직과 제일모직이 자리한 침산동 일대에 공단을 조성했으며, 공단 조성에 따라 섬유 생산량은 증가했다. 이후 섬유산업은 1973년 1차 석유파동과 1979년 2차 석유파동을 맞이하면서 점차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 2. 쇠퇴기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대구를 대표하던 섬유산업은 1980년대 중반부터 수출액이 점점 감소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말 섬유업계에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공장들은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었다. 이후 1980년 한국 수출액의 29.1%를 차지하던 섬유산업은 1990년 22.7%, 2000년엔 10.9%로 급감했다. 2016년 사상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1)]

<표 17> 대구 경제에 구름이 안 걷힌다 (중앙일보, 1985.10.30.에서 일부 발췌)

| |
|---|
| …3백 40여 개의 섬유사 가운데 올 들어서만 23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 작년말비 10%의 수출 단가 하락으로 채산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40개 업체가 도산했다. 앞으로도 얼마의 업체가 더 넘어질지 모르는 가운데 근근히 기계를 돌리고 있다.<br><br>최근 도산 위기를 맞은 구극섬유는 1천여명의 종업원 가운데 3백여명의 |

1) 영남일보, 2013.10.15. [대구 산업화 출발지 제1공단 터의 재발견]

숙련 기능공들이 다른 회사로 일자리를 옮겼다. 새로 옮겨 간 회사도 언제 문을 닫게될 지 모르는 실정이다.

공장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 업체마다 적자 수출을 하다가 자금난에 휩싸이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이 최근의 대구섬유업계다. (이하생략)

[출처: 중앙일보] 대구 경제에 구름이 안 걷힌다
https://news.joins.com/article/2022990

우리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섬유공장이 많았는데 내가 성인이 돼가 다른 직장 가지고 어느 날 딱 보니까 섬유공장이 엄청 없어졌대. 그렇게 섬유공장 나가고 다른 단지 생기고 이랬으니까. (B)

이런 계통에서 지금 이런 회사가 문을 많이 닫았어요. 불경기이다 보니까. 이 회사 문 닫고, 저 회사 문 닫고 지금 남아있는 게 대구에서는 6개 남아있거든요. 사이징 회사가 처음에는 16개 정도 (D)

많은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혹은 생산량을 줄인 탓에 섬유 도시였던 대구는 1992년 이래로 지역 내 총생산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199년부터 6,800억 원을 들여 '밀라노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이미 생산설비 대부분이 해외로 이전한 상황에서 대구가 섬유 도시 타이틀을 되찾는 것은 무리였다.

특히 2008년 기준 섬유업체는 종사자 50인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88.0%를 차지, 대구에는 300인 이상 섬유제품업체는 1개뿐이며 대부분 영세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이병찬 외, 2006). 하지만 영세업체 또한 대부분 문을 닫을 만큼 섬유산업은 급격히 쇠퇴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기술자 또한 사라졌다. C는 기술자가 줄어드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배우려는 사람이 없어요. (중략) 이제는 자동 통경기가 있긴 해요. 근데 너무 비싸요. 영세업체들이 아직도 많은데 큰 업체들은 기계가 있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공장을 크게 돌리는 업체는 자동 통경기가 있어서 사람이 없어도 되는데, 그 기계가 너무 비싸니까 회사에서 그거를 못 갖다 놔요. 그래서 아직 사람의 힘으로 통경을 하는데 그 통경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부 70살 다 되어가고, 새로 배우는 사람이 없어서. 눈도 나쁘제, 손도 어눌하제, 그니까 공정이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중략) 예전에 했던 사람이 계속해야 하니까 노년층이 하게 되는 거죠. 그니까 시간 지나면 큰일 날 거예요. 영세업체들은 아마도 문을 닫거나 이래야 될 거에요. 그니까 큰 업체들 자동 통경기를 갖고 있는 업체가 살아남겠죠. 그러면 서로가 그 업체에 거래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섬유는 점점 중국이나 다른 쪽으로도 가겠죠? 기술자들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워요. (C)

과거 사람이 손수 하던 일을 현재 자동 통경기가 대체하기도 하지만, 영세업체들은 비싼 통경기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C는 제조에서 중요한 공정인 '통경'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이 없어 현재 노년층의 기술자가 자리를 대신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현재 기술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탓에 통경 기술자의 임금이 오르게 되는 현상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통경 공정마저 노동력이 값싼 해외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대구'라는 공간에서 섬유산업은 사양산업이 되었다. 대부분은 이를 곧 섬유산업의 멸망으로 해석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섬유산업 자체는 쇠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00년대 들어 섬유의 대량생산 체제는 해외로 이전했지만, 국내에서는 탄소섬유·나노섬유 등 고부가가치 및 고급 섬유에 대한 투자 및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다. 따라서 섬유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 제5절 소결

도시공간의 주인공으로 여성을 호명했을 때에는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서 포착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드러난다. 먼저 인터뷰를 진행한 다섯 명의 여성 노동자는 모두 대구 출신이 아닌, 경상남도 혹은 경상북도에서 대구로 이주했다. 이때 여성 노동자들은 모두 노동이 목적 그 자체가 아니었다. 가족부양 및 생계유지를 위해, 교육을 위해 노동을 수단으로 삼았다.

둘째, 여성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편차가 컸다. 영세기업일수록 시설과 복지가 열악했다. 특히 근무시간은 노동자에게 맞춰지기보다 끊임없이 돌아가야 하는 기계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움직여야 했다. 또한,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CCTV로 근무공간 내 새로운 감시체계가 구축되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식시간과 식사시간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지만, 근무환경에서의 부당한 대우는 생계유지를 위해 감수해야만 하는 '작은 불편함'에 불과했다. 하지만 여성 노동자들은 근무 중 출근하지 않고 외출을 하는 일탈을 즐기기도 했다. 당시 공장은 구인난을 겪고 있었기에 기술자였던 여성 노동자들의 일탈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셋째,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에피소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당시 성과 관련된 담론은 여성에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다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출산, 불륜 혹은 상대방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 여성은 남성과 비교했을 때 더욱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대체로 여성은 퇴사가 되었지만, 남성에게는 근무지 이전이라는 다소 가벼운 제재만이 있을 뿐이었다.

넷째, 그동안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은 '공장에 대한 동경'으로 해석되었다(김원, 2005). 하지만 인터뷰를 통해 본 여성 노동자가 가진 열망의 대상은 공장이 아닌 '교육'이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 가정 형편이 어려워 진학을 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학업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을 선택한 경우를 미루어 볼 때 이

들에게 동경의 대상은 교육과 학생이었다.

대구는 1990년 쇠퇴기를 맞이하기 전까지 섬유 도시로 통했다. 대구의 정체성은 '섬유' 그 자체였으며, 섬유산업이 쇠퇴한 오늘날까지도 '컬러풀 대구(Colorful DAEGU)'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내걸 만큼 대구에서 섬유산업은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끈 주역이라는 자긍심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여성의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현재 도시가 간과한 지점이 드러난다. 즉, 도시의 이야기는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구축되었다. 이는 공간을 획일적으로 재현하는 정체성에 균열을 가하여 다방면으로 도시 공간을 해석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상의 논리에 따라 국가발전 담론과 가부장적 국가체제 아래 공적 영역으로 진출한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도시의 남성 중심적인 해석에 대한 대항 담론이 될 수 있다. 대항 담론으로 제시된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는 기억의 정치에서 선택받지 못한 여성을 공간의 주체로 호명함으로써 공간을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제7장 결론

## 제1절 연구 요약 및 함의

본 논문은 ‘섬유 도시’ 대구의 남성 중심적인 재현을 비판하고, 도시 아카이빙을 통해 여성 노동자를 공간의 주체로 호명하는 대안적 방법을 제시했다. 도시 고유의 사회·공간적 맥락에서 탄생하는 도시의 이야기는 도시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도시를 바라보는 현 시각은 그 자체로 개인에게 고정된 이미지를 각인시켜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획일화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공간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서 주류가 되지 못한 주체들은 비주류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공간의 주체였던 비주류 개인들을 공간의 주체로 초대하는 것은, 획일화된 공간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이상의 논리에 따라 본 논문은 여성 노동자 5명과 섬유산업 종사자 및 주변인 남성 3명의 인터뷰를 통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섬유 도시’라는 대구의 정체성은 노동의 주체였던 여성 노동자의 공간을 단편적으로 재현했다. 섬유산업의 다양한 공정과 여성 노동자들이 맡았던 다양한 업무 그리고 생활 공간이 드러나지 못했다. 더욱이 노동자를 재현하는 과정에서는 생산직 노동자만을 재현한 탓에, 사무직 노동자에 대한 재현은 보기 힘들었다.

둘째, 여성 노동자들은 다중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인터뷰에 응했던 여성 노동자들은 기술자, 딸 혹은 맏이, 어머니 혹은 가장, 학생 정체성을 지녔지만, 기존 남성 중심적 재현방식 아래 여성 노동자들은 단순히 ‘노동자’의 모습으로만 비추어졌다. 이들은 학생이자 가족의 일원으로 일을 하는 노동자이기도 했지만, 스스로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거나 결혼자금을 마련하는 경제주체이기도 했다.

셋째, 여성 노동자들에게 노동은 목적이 아닌 수단에 불과했다. 이들은 가족부양과 생계유지 혹은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노동을 시작했다. 또한, 인터뷰를 진행한 다섯 명의 여성 노동자는 모두 교육에 대한 열망을 가졌다. 이는 건강상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거나 혹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교육을 받지 못한 것에서 영향을 받았다.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워 진학하지 못한 경우 노동을 학업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했으며,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학원을 등록하거나 대학을 진학한 사례도 있었다.

넷째, 공장의 시설과 여성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은 기업에 따라 편차가 컸다.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영세기업의 근무환경은 박물관 혹은 전시를 통해 재현되는 대기업의 근무환경에 비해 열악했다. 특히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CCTV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휴식시간마저 누군가에게 감시당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노동자들은 이를 생계유지를 위해 기꺼이 감수해야 하는 '작은 불편함'으로 여겼다.

다섯째, 여성 노동자들의 일상은 인간이 아닌 기계에 맞춰졌다. 생산을 멈추지 않기 위해 여성 노동자들은 주간과 야간을 오가며 자신의 신체를 공장의 시간표에 적응시켰다. 하지만 여성 노동자들은 공장에 종속된 '을'만은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공장은 기술자 구인난을 겪고 있었기에 기술자였던 여성 노동자들의 일탈을 눈감아주기도 했으며, 여성 노동자를 다른 공장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더 좋은 근무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섬유 도시' 대구는 여성 노동자의 삶의 터전이자 기회의 공간이었다. 대구는 여성 노동자들이 가족부양과 생계유지를 위한 공간이자 어린 나이에 경제주체로 거듭났던 공간이다. 따라서 도시 정체성으로 일컬어지는 도시 이야기에서 드러나야 할 것은 기업의 이름과 숫자로 환원된 이익이 아닌 대구의 발전과 함께했던 여성 노동자의 일상이다.

본 연구는 도시에서 배제된 여성 노동자의 일상을 통해 그간 도시연구에서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남성 중심적 시각을 역으로 포착했다.

‘섬유 도시’라는 대구의 정체성 이면에는 경제적 가치로 환원될 수 없는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가 존재한다. 네 글자로 단순 축약된 ‘섬유 도시’는 도시 공간 행위자였던 여성 노동자를 배제했다. 이는 기존 도시를 해석하는 방법으로는 여성의 이야기를 포착할 수 없음을 나타내며, 도시를 바라보는 보편적 시각이 남성 중심적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의의는 선택적 재현의 과정으로 탄생한 도시의 기억이 간과했던 요소들을 파악하고, 도시 아카이빙을 통해 여성 노동자를 공간의 행위자로 호명하는 대안적 방법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

끝으로 공간을 바라보는 대안적 방법은 비단 여성을 주체로 호명할 때에만 적합한 것이 아니며, 기억의 정치와 선택적 재현의 대항 담론으로서 제안된 것임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시의 가치가 경제적으로 환원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간이 의도적으로 편집되어 하나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헤게모니적 동일화를 지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 제2절 연구의 한계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인터뷰 대상자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없기에 대구 섬유산업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연구자는 대구여성가족재단과 각 고등학교 총동창회를 통해 인터뷰 대상자를 모집한 후 소개를 통해서만 응답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애초 서문시장 및 침산동 일대 노인정을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인터뷰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에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여성 노동자의 삶 전부를 다루지 못했으며, 본 연구의 사례는 일부 복원한 것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도시 아카이빙을 통해 여성을 공간의 주체로 호명

하는 대안적 방법을 제시했지만, 이는 하나의 이론이기보다 대항적 성격의 담론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은 도시의 선택적 재현을 통한 공간의 획일화를 통해 도시가 배제한 지점을 포착하고, 여성을 공간의 주체로 호명하여 도시 연구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가 있다면 도시의 선택적 재현에 대한 대안적 방법을 구체화하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논문]**


강이수. (1993). 1930년대 면방대기업 여성노동자의 상태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65-70.

권용석. (2018). 인천 박물관들 속 기억의 정치와 정체성 만들기: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IDI 도시연구, (13), 287-317.

김경민. (2018). 규율화된 신체, 저항하는 신체. 서강인문논총, 52, 43-71.

김미숙. (2006). 한국 여성노동력의 성격변화와 노동정책: 1960-2000. 한국인구학, 29(1), 133-156.

김상숙. (2004). 1980년대 대구지역 여성 노동자들의 생활과 노동운동에 대한 시론적 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371-176.

_____. (2018). 젠더 통제의 변화와 여성 노동자의 생활경험: 1970~1980년대 대구 제직공장의 '기사'-'직수-팀 노동조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사학회, 119, 167-199.

김성은. (2016). 20세기 대구 여성의 삶과 일. 한국여성철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39-59.

김양섭. (2014). 일제 강점기 인천 성냥공장 여성노동자의 동맹파업. 지방사와 지방문화, 17(2), 289-328.

김영화. (2010).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성찰과 전망: 공간의 정치에서 복지의 공간으로: 대구시의 경우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3(1), 91-121.

김종태. (2014). 한국 발전주의의 담론 구조. 경제와사회, 103, 166-195.

박은선. (2019). 페미니스트 저항 도시 계획. 공간과 사회, 14-62.

박의경. (2002). 공공영역에서의 여성 가시화 전략. 여/성이론, (6), 9-28.

박재민, 성종상. (2012). 산업유산 개념의 변천과 그 함의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논문집, 21(1), 65-81.

박혜영, 박금식. (2015). 산업시대의 여성. 젠더와 문화, 8(1), 87-123.

백일순. (2021). 왜 미군 위안부는 잊혀져야 했는가? -기지촌의 로컬리티와 기억의 정치. 로컬리티 인문학, (25), 39-76.
선재원. (2011). 한국 섬유산업과 노동시장 1945~2004. 경영사학 제26집 제4호, 5~23.
신지은. (2011). 장소의 상실과 기억. 한국사회학, 45(2), 232-256.
신진숙. (2018). 탄광서사를 통해 본 산업 폐허와 기억의 정치. 문화역사지리, 30, 74-91.
심주형. (2003).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기억의 정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재훈. (1992). 섬유·의복산업의 현황과 노동운동. 정세연구, 225-253.
여진원, 장우권. (2013). 도시아카이브 구축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2), 315-335.
오동욱. (2018). 지속가능한 보존관리를 위한 지역 근대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연구. 지역사회연구, 26(1), 89-110.
우미영. (2012). 문화적 기억과 역사적 장소: 1920-1938년의 경우. 국어국문학, 161, 475-504.
유가효, 박혜인, 조희금, 박충선. (1991). 대구지역 생산직 기혼 여성의 취업 및 가족생활실태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1). 대한가정학회지, 29(3), 227-246.
윤정란. (2006). 식민지시대 제사공장 여공들의 근대적인 자아의식 성장과 노동쟁이의 변화과정. 한국사회역사학회, 9(2), 37-76.
윤지환, 김숙진. (2020). 기억의 선택적 재현과 다층적 기억 해석을 둘러싼 갈등. 문화역사지리, 32, 116-132.
이기형. (2008). 문화연구와 공간. 언론과 사회, 16(3), 2-49.
이정옥. (1988). 한국의 공업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여성문제연구. 대구: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이정희. (2016). 일제강점기 대구의 제사업과 여성노동자의 실태, 민족문화논총, 64, 59-84.
이철우, 박양춘, 박규택. (1999). 대구 섬유산업의 재구조화와 지역경제

발전 전략. 대한지리학회지, 34(2), 155-175.
이한구. (2015). 산업화기(1960~70) 한국기업가정신과 유교.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학 30(1), 203-226.
이호연. (2005). 192030년대 방직공업 여공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담론. 여/성이론(13), 201-219.
이희영. (2008). 1950년대 여성노동자와 '공장노동'의 사회적 의미-광주전남방직 구술사례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14(1), 165-206.
장미경. (2004). [특집] 근대화와 1960-70년대 여성 노동자-여성노동자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61, 106-134.
장하진·장미경·신경아·오정진. (2001). 근로여성 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근로여성정책 50년, 노동부.
정미숙. (1993). 70년대 여성노동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경험세계적 연구.
정찬영, 김주호. (2019).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관광학적 접근: 문화적 기억, 노스탤지어, 진정성, 경관이론을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23(4), 217-238.
조규원, 김태형. (2017). 이분법적 도시공간구조와 여성대상 사회문제의 상관성.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52-53.
조은. (1983). [특집/한국 여성3] 경제 발전과 여성의 노동-이론적, 현실적 쟁점들. 현상과인식, 7(3), 53-69.
조진희. (2008). 여공, 스크린 재현의 정치학. 영화연구, (35), 77-104.
태혜숙. (2004). 한국의 식민지 근대체험과 여성공간. 한국여성학. 20(1), 33-56.
Casey, E. (1987). "Remembering: a phenomenological study". *Indiana University Press*.
Edensor, T. (2005). "The Ghosts of Industrial ruins: ordering and disordering memory in excessive spac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3(6), 829-849.
Schwartz, B. (1996). "Rereading the Gettysburg address: Social change and collective memory". *Qualitative Sociology*, 19,

395-422.

**[단행본]**

강영경 외(2017).「한국 여성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원. (2005). 「여공 1970, 그녀들의 反역사」역사, 서울: 이매진.

대구여성가족재단. (2015). 「대구, 섬유 그리고 여성」.

신순애. (2014). 「열세 살 여공의 삶: 한 여성 노동자의 자기 역사 쓰기」, 한겨레출판.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개정판, 박영스토리.

이병철. (2014). 「호암자전」, 나남.

전진성. (2005).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서울: 휴머니스트.

태지호. (2014). 「기억 문화 연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태혜숙 외(2004).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여이연.

Foucault. M. (1975). Surveiller et punir : Naissance de la prison. 오생근 역(2003), <감시와 처벌>, 나남.

Halbwachs, M. (1992). On Collective memo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cDowell, L. (1999). Gender, Identity and Place: Understanding Feminist Geographie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여성과 공간 연구회 역 (2010). <젠더, 정체성, 장소>. 서울: 한울아카데미.

Rowbotham, S. (1977). Hidden From History: 300 Years of Women's Oppression and the Fight Against it". Pluto Press.

**[보고서]**

박훈. (2011). 「섬유산업의 기초분석」. 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이병찬, 권상장, 김도형, 김영철. (2006). 「대구경북 산업경영사」,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이임자. (2013). 「섬유산업의 최근 동향과 전망」, KIET 산업연구원.
이재덕, 김경석, 김지혜, 김계환. (2014). 한국형 ODA 산업분야 연구 : 발전경험 시리즈 [섬유산업]. 산업연구원 정책자료 연구보고서」

**[기사]**

『영남일보』, 「대구 산업화 출발지 제1공단 터의 재발견」,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131025.010030754000001. (2013.10.15.)
『조선일보』, 「두 동생 뒷바라지 한 여공, 초등학교 졸업 후 입사」,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1843719810310m1069&set_date=19810310&page_no=6. (1981.03.10.)
_____, 「노동실태」,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1213619610129m1031&set_date=19610129&page_no=3. (1961.01.29.)
_____, 「돌아가는 기계에 소녀공 참사」,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321919291224e10714&set_date=19291224&page_no=7. (1929.12.24.)
_____, 「펠드에 감겨 여공즉사」,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569919370329e1022&set_date=19370329&page_no=2. (1937.03.29.)
_____, 「대구제사회사 여공숙사에 대화」,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575219370521e1022&set_date=19370521&page_no=2. (1937.05.21.)
_____, 「근로자들 직장선택 달라진다」,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1944919840621m1111&set_date=19840621&page_no=11. (1984.06.21.)

『중앙일보』, 「대구경제에 구름이 안 걷힌다」,
https://news.joins.com/article/2022990.（1985.10.30.）

**[홈페이지]**

대구광역시 북구청. http://www.buk.daegu.kr.（최종열람: 2021.02.18.）
대구광역시청. http://www.daegu.go.kr.（최종열람:2021.05.14.）

## Abstract

# Representing the Memories of Urban Space from the View of Women Workers

## : Focusing on the Criticism of Selective Representation of Daegu Textile Industry

Green Kim
Urban and Region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criticizing the male-centered representation of Daegu as a textile city and suggests an alternative method of calling women workers as the subject of urban space through the methods of urban archiv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dentity of Daegu as a 'textile city' represented women workers who were the main subjects of the textile industry fragmentarily. The various processes in the textile industry and the various tasks performed by women workers have not been fully displayed in such representation.

In particular, the figure of women working in office jobs was excluded in the simplified representation of the women as low-skilled laborers.

Second, the representation of the city with a monolithic aspect of the economic value tends to conceal the multiple identities of female workers. Women workers were simultaneously technicians, daughters, mothers, the heads of households, and/or students. They were also economic agents who earned money not only to support their families, but also to to help their own livelihoods, and to finance their marriage.

Third, for women workers, labor was just a means, not a purpose. They chose the labor to support their families, earning a living, or continuing their studies. Also, all five women workers who interviewed had an aspiration for education.

Fourth, selective representation of the textile industry did not contain the story of small enterprises. The facilities of factories and the working environment of women workers varied according to the size of companies. Although the working environment is still lacking in small business nowadays, they often regarded the poor working environment merely as a 'small inconvenience' to make a living, the more urgent object to the women. In other words, many women considered even the dangerous and poor working environments as an opportunity cost. Such agency has rarely drawn the attention of mainstream criticisms, which have mostly focused on how the poor environments further exploited the women, regarding them simply as 'victims.'

Fifth, while the women workers' daily routines were tailored to the ways the machine operated, they were not entirely subordinated to the factory. At that time, the factories were suffering from job

shortages of technicians. The managers often overlooked the deviations of women workers and even listened to their demands to prevent labor outflow.

Suppose women are called the subject of space instead of the passive victims in the production of such space. It would avoid the misinterpretation of women workers as the victims of labor exploitation or simple representation of them as the mobilized by the developmentalist state for national development. When women are called the subject of space, 'textile city' Daegu becomes the place of opportunity for them. What is a point that has rarely been highlighted in urban studies so far is the stories of various subjects, rather than the economic value, that really constitute the dynamics of urban spaces.

This study reversed the male-centered perspective taken for granted in urban studies through the daily lives of women workers excluded from the representation of cities. Women workers in the current representation of 'textile city' have merely served as a supplement to the success story of the companies, the hero of the growth of the great city. It means that the mainstream view adopts a male-centered bia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elements in which the memory of a city is created through the process of selective representation and to suggest an alternative method of calling women workers as the active subjects of space through urban archives.

In addition, the alternative way to look at space not only appropriates women are regardedas the subjects of urban history but also suggests a counter-discourse to the politics of memory and selective representation. That would avoid hegemonic identification in which space is intentionally edited and has a single character while

the value of the city being reduced solely economically.

Finally, this study has two limitations. First, since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interviewees could not be guaranteed, there was a limit to restoring the lives of all women workers in the Daegu textile industry as it was. Second, although the alternative method of calling women subjects to the center of urban narratives has been suggested, it is just a discourse of counter-character rather than a theory. If there is a follow-up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study will proceed to further specify the alternative method to the selective representation of the city.

keywords : Women Worker, Urban Archives, Textile Industry, Selective Representation, Politics of Memory, Daegu.

*Student Number* : 2019-27051